

**WORLD
/
HA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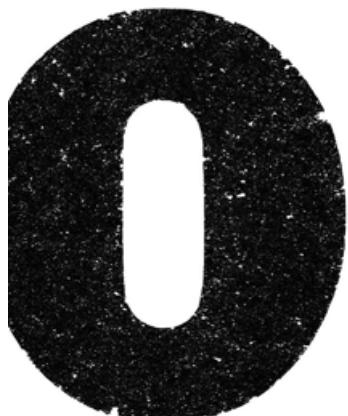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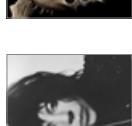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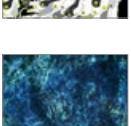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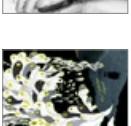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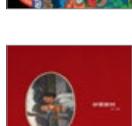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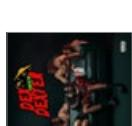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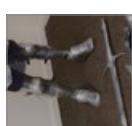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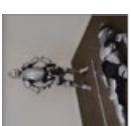
OF

MATTERS

#21



X
KHL



Contents

1

Recently released Album

2

Full-length Album

3

Classics

4

Feature

5

Editor's Pick

EDITOR 은암
EDITOR 자카

EDITOR SONGCHICO
EDITOR blvckmvtter

EDITOR ryuzimoto
EDITOR moogsick

EDITOR SRUKSAN
EDITOR denim

EDITOR 감성주의
EDITOR 산소

EDITOR loading



Recently released
A l b u m



#mia

skaiwater

PAPOTA

CA7RIEL & Paco Dirty TalkMichi

OI!

YT

They Left Me With the Sword

Paris Texas

They Left Me With a Gun

Paris Texas

#mia - skaiwater



스카이워터
(*skaiwater*)
의 새로운 앨
범 <*#mia*>는
L.A., 런던, 브
라질 등 수많은 장
르의 음악을 독창
적으로 섞어냈던

<*gigi*>와 달리 그 특유의 랩-록 / 일렉트로닉 스타일의 음악을 근간으로 하여 더욱 단단한 모양새를 갖춘 작품이다. 스카이워터만의 이별 서사를 잊고 있는 본작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는 연인을 향해 울부짖으며 자신을 내던지는데, 이가 특히 두드러지는 트랙은 “pop”이다. 오케스트라적인 칩튠 합창과 함께 울려 퍼지는 ‘*Don't fuck him 'cause you miss me*’ 한 구절은 가벼운 애원이 아니라 처절한 울부짖음에 가까우며, 스카이워터의 감정 표현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작의 핵심적인 순간이다. <*#mia*>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바로 그 특유의 랩-록과 일렉트로닉 스타일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사운드가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feral*”에서 드러나는 어쿠스틱 기타 리프와 강렬한 베이스라인이 매끄럽게 어우러지는 순간에서 스카이워터는 본인의 멀티 장르적 감각 역시 자연스럽게 내비친다. 마지막 트랙 “*manicinamerica*”에서 그는 덤덤한 목소리로 허무함을 내비치며 앨범의 끝매듭을 짓는다. <*#mia*>는 스카이워터 본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음악으로 구현해낸 작품이며, 그는 그 혼란스러운 흐름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데에만 집중했을 뿐이다.

EDITOR 자카

1. pop Released 2025. 2. 14.
2. fearl
3. by the moon
4. wolf (ft. RADA)
5. You don't feel the same.
6. maria
7. ur song
8. manicinamerica



PAPOTA -

Released 2025. 3. 6.

CA7RIEL & Paco Amoroso

Tiny Desk
에서의 공연이 유
튜브 순 조회수
3000만 회를 기
록하고, 틱톡과
릴스를 포함한 솗
풀 플랫폼 등지에
서 큰 주목을 얻게



된 카시에리엘(CA7RIEL)과 파코 아모로소(Paco Amoroso).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와 명예가 가져다 준 혼란을 이들은 “*IMPOSTOR*”에서 유쾌하게 털어놓는다. ‘*Tiny Desk*를 가지 말 걸 그랬어, 난 노래도 할 줄 모르고, 랩도 잘 못하는데, 완전히 X돼버렸잖아..’. 자학적인 유머로 시작되는 <*PAPOTA*>는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마주한 뒤에 두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이 느낀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이다. 다수의 트랙들에서 성공 이후 찾아온 불안이 솔직하게 드러나지만, “#*TETAS*”와 같은 트랙들은 이들이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음악적 쾌락과 자유를 향한 탐닉을 보여준다. 또한 “*RE FERRO*”의 네오-소울과 라틴 리듬을 접목시킨 사운드에서는 이들의 한 층 더 넓어진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 후반부의 *Tiny Desk* 스타일로 편곡된 <*BAÑO MARÍA*>의 수록곡들도 무시할 것이 못 된다. 앨범 전반에 놓인 광기 어린 라틴 리듬은 곡들에게 색

1. IMPOSTOR 다른 생명력을 부여하며, 베이스 라인과 유려한 R&B 사운드는 이들이 단기간에 이루어낸 발전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PAPOTA*>는 혼란과 불안에 가라앉기보다는, 단지 이 순간을 미친 듯이 즐기고자 하는 두 젊은 신예들의 끝내주는 태도가 빽빽히 채워져있는 작품이다.
2. #TETAS
3. RE FORRO
4. EL DÍA DEL AMIGO
5. DUMBAI (Live at NPR MUSIC's Tiny Desk)
6. EL ÚNICO (Live at NPR MUSIC's Tiny Desk)
7. MI DESEO/BAD BITCH (Live at NPR MUSIC's Tiny Desk)
8. LA QUE PUEDE, PUEDE (Live at NPR MUSIC's Tiny Desk)
9. AGUA (Live at NPR MUSIC's Tiny Desk)

EDITOR 자카



Michi Dirty Talk -

미치(Michi)의 <Sugar Baby> EP는 혀를 녹일 듯한 막대 사탕이나 톡 쏘는 슈팅스타 아이스크림이 었다고나 할까. 반면 데뷔 정규작 <Dirty Talk>는 순도 75% 이상의 원두나 카카오로 제조한, 아메리카노나 다크초콜릿의 달콤 쌈싸름함이 있다. 레트로와 클래식으로 우려낸 진한 기품이 최고로 우아한 흑백 커피 CF를 보는 듯하지만, 자극적인 시제품 홍보용은 결코 아니다. 능숙한 핸드드립에는 여러 스승들이 보인다. *Alicia Keys*, *Teedra Moses*, *Aaliyah*와 같은 컨템포러리 디바는 물론, *Kali Uchis*, *SZA*, *Ravyn Lenae*에게 배운 터치들도 눈에 띤다. 그러나 기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 세대로부터의 노하우다. 어떤 곡들은 때마침 필리/스무스 소울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Eddie Chacon*에게 “이것도 잘 보고 배워두면, 써먹을 데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바짝 옆에서 듣고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이토록 많은 배움들에는 제 것으로 만들려는 진정성이 바탕으로 있다. 실연이라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 오랜 댄서로서의 이력을 살린 하우스 “*There's No Heaven*”, 출신지의 지역성을 살린 보사노바 “*Memmy*”도 과감하게 수록한 모습으로 알 수 있다. 그녀에게도 이것은 취향이나 요령이 아닌, 진심과 정성으로 대하여 나를 드러낼 사랑이자 문화인 것이다.

EDITOR 감상주의

Released 2025. 2. 28.

1. Intro
2. Walking Away
3. OMW
4. If You Want Me
5. Snoobie
6. There's No Heaven
7. Memmy (Recuerdo)
8. Playing Pretend
9. So Divine
10. Way I Do (feat. Kiefer)



1. Girls Trip
2. Arenas
3. Diamonds (Feat. fimiguerrero)
4. Missed Your Call I'm on a Flight Right Now
5. Serena
6. Put Yo Hands Up
7. Black & Tan (Feat. Lancey Foux)
8. Don't Miss Me Too Much
9. Money Walk (Feat. Len)
10. Panda (Nananana)
11. Prada or Celine
12. Make It

현시점, 전세계의 래퍼들 중 가장 똑똑한 인물이 아닐까? 약 1년 전, 옥스퍼드를 졸업한 YT는 대학 재학 시절 재미로 만들었던 “*Arc'teryx*”가 바이럴을 타면서 본격적으로 래퍼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프랑스어와 철학을 이수했음에도 UK씬을 애틀랜타의 향취로 물들였던 <*CONGLOMERATE*>을 만들어낸 영웅들, *Lancey Foux*, *Fimiguerrero*, *Len*의 지지를 받는 랩스타로 남는 것을 택했다. 이러한 스타들의 푸쉬는 바이럴 스타에 불과했던 YT를 드릴 사운드에서 미국에서 직수입한 저크(*Jerk*) 사운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UK 언더그라운드 씬의 주역이자, 세대교체의 장자로 만들었다. 어깨에 UK 저크 씬을 짊어진 YT의 본작은 <*CONGLOMERATE*> 패거리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저크 특유의 박수 소리와 중독적인 신시사이저로 가득 찬 트랙들은 노스텔지아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사운드를 형성하며, ‘저크 정신’에 걸맞는 완성도를 보여준다. YT는 본작의 제목이자 자신의 시그니처 사운드 태그인 ‘*Oi!*’와 함께 등장해, 고개를 들썩 이게 하는 벌스를 나열하며 존재감을 각인시킨다. 저크를 이용해 작년부터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UK의 언더그라운드 씬, 그 씬의 현재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YT의 <*Oi!*>를 들어볼 것을 추천 한다. *Oi!*

Released 2025. 3. 28.

They Left Me With the Sword - Paris Texas

- | | |
|----------------------------|----------------------|
| 1. The Sword | 6. Holy Spinal Fluid |
| 2. Dogma 25 | 7. infinyte |
| 3. Red Eyes & Blue Hearts | 8. El Camino |
| 4. Tantrum | |
| 5. Boyz II Men (interlude) | |

Released 2025. 2. 21.



They Left Me With a Gun - Paris Texas

- | | |
|------------------|---------------|
| 1. Superstar | 5. H A L O |
| 2. Twin Geeker | 6. No Strings |
| 3. Stripper Song | |
| 4. mudbone | |

Released 2025. 2. 28.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은 금지된다.
말하자면, 영화는 ‘현재, 이곳’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 1995, 라스 폰 트리에, 크리스티안 레우링, 토
마스 빈터베르, 쇠렌 크리그야콥센

도그마 95 선언을 오마주한 제목의 “*Dogma 25*”로 시작을 알리는 *Paris Texas*의 백투백 EP <*The Left Me With the Sword*>와 <*They Left Me With a Gun*>은 현재,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서사나 맥락, 장르적 유기성마저 존재하지 않는 카오스적 앨범. 아마 그 탄생조차 *Tyler, The Creator*의 *CHROMAKOPIA* 투어에 게스트로 참여하며 선보일 작업물의 필요성이라는 간단한 이유에 있었을 이 듀오의 연작은, 그 현재성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잠재력을 발화시킨다. 랩 락이라는 장르가 띠는 폭발성이라는 특질에 혼란한 즉흥적 움직임이

맞아떨어져서일까, 트랙에서 예상치 못함 흐름이 느껴지고 뜯금없는 멜로디가 등장할 수록, 이 듀오의 매력은 더욱 강렬해진다. 연작의 더욱 놀라운 장점들은 단지 격정적이고 폭력적인 랩 락 트랙들에 그치지 않는다.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는 슬래커 락, 신스 펑크, 포스트 펑크 리바이벌 등의 얼터너티브의 잔향은 기괴하고 독특한 B급 감성 솟 필름과 어우러지며 파리스 텍사스라는 듀오의 아이덴티리를 확립시키는 듯하다. 이 대안적인 시네필 펑크 듀오의 괴상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아보자.

EDITOR blvckmvttter



2

Full-length
A l b u m

MUSIC

October Country

From The Private Collection of Saba and No ID

Club Shy Room 2

Dead Channel Sky

Playboi Carti

Ghost Mountain

Saba × No ID

Shygirl

clipping.



MUSIC
Playboi Carti

Released 2025.3.14.

“나는 음악이다”. 〈Whole Lotta Red〉 이후 5년 만에 발매된 Playboi Carti의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을 나타내는 이 자아도취적 선언은, 어째서 ‘힙합’이 아닌 ‘음악’ 그 자체를 겨냥하는가? 어째서 카티는 랩스타가 아닌 락스타를 자칭하는가? “나는 음악이다”의 원문 “I AM MUSIC”의 무게중심은, ‘MUSIC’이 아닌 ‘I’에 위치한다. 자신을 음악이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 자체를 자신으로 치환해 버리는 대범한 선언. 카티에게 힙합을 포함한 음악은, 곧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스스로를 시대적, 컬트적 아이콘, 또는 ‘Timeless’한 클래식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재에 불과하기에 상세한 구분과 규범적 분리가 불필요한 것이다. 종국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이콘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이고, 그렇기에 〈MUSIC〉의 성패는 곧 이 자아실현의 성패에 묶여있다.

카티가 아이콘으로 부상하여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던 핵심적 원인은 그의 음악과 미학 전반의 아방가르드함과, 직접 참여하며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을 추구하는 리스너들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니즈에 대한 충족이었다. 〈Die Lit〉의 힙합과 평크 정신의 하모니는 다분히 조던 터렐 카터라는 한 개인의 취향이 교집합하며 태어난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겠지만, 아티스트로서의 카티는 그 속에서 세대를 관통할 정신을 발견한다. 너무나 격렬하여 매력적이고,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응집력이 뛰어나며, 너무나 뜨거워 오라(Aura)의 벽을 세워내는 감정, 격노(Rage)다. 〈Die Lit〉의 대표곡이자 카티의 대표곡인 “R.I.P”, 그토록 광적인 열광을 불러내기 위하여 이 곡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래핑과 Pierre Bourne의 폭발적 비트 뿐이었다. 21세기의 젊은 리스너들을 열광시키는 요소는 철학적 고뇌나 심리적 고통에서 탄생하는 Eminem과 Kendrick Lamar의 리릭시즘이나, 2Pac과 Biggie의 클래시컬하고

2
FULL

그루비한 랩도, J Dilla와 ye의 혼란한 프로듀싱의 과시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21세기 아이콘의 음악은 오직 격노의 배출구로서, 청각적 쾌감을 위한 향유물로서만 작동하면 되었고, 〈Die Lit〉이 선사한 이 깨달음은 카티의 구심점이자 셀링 포인트이며 커리어 그 자체가 되어주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바로 그 격노의 분출을 음악으로 온전히 성사시킨 〈av〉는 카티를 그토록 바라던 락스타이자 아이콘으로 만들어주었다. 끊임 없이 락스타를 지향해오던 그는 언제나 이 깨달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고, 그렇기에 5년의 공백에도 굳건히 기립하여 버틸 수 있을 클래식을 만들어냈다. 그 누구도 시도 한 적 없던 괴성에 가까운 랩과 F1lthy와 Art Dealer, ye의 광분하는 프로듀싱, 신비주의적 뱀파이어 미감의 삼위일체는 어쩌면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그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시간적 배경 또한 얼마나 운명론적이었나. 기나긴 판데믹으로 응어리 진 우리들의 감정을 〈Whole Lotta Red〉는 온전히 받아내어 쏟아내주었고, 그렇기에 카티를 향한 사랑은 불가항력적이었다. 이토록 운명적이었기에 그의 행보는 당연히도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그의 공연은 라이브 없이도 그 누구의 것보다 매혹적이었고, 그가 설립한 레이블 OPIUM은 레이지 씬을 점령하였으며, BALENCIAGA와 Rick Owens로 대표되는 'OPIUM CORE'의 유행은 소셜 미디어를 사로잡았다. 모든 면에서 전통을 탈피한 특유의 아방가르드함으로 평단의 호평마저 이끌어낸 것도 잊을 수 없다. 〈Whole Lotta Red〉를 통해, 카티의 자아실현은 그 발화와 동시에 완성에 이르렀다.

1. POP OUT
2. CRUSH with Travis Scott
3. K POP
4. EVIL JORDAN
5. MOJO JOJO
6. PHILLY with Travis Scott
7. RADAR
8. RATHER LIE with The Weeknd
9. FINE SHIT
10. BACKDOOR (feat. Kendrick Lamar & Jhené Aiko)
11. TOXIC with Skepta
12. MUNYUN
13. CRANK
14. CHARGE DEM HOES A FEE with Future & Travis Scott
15. GOOD CREDIT with Kendrick Lamar
16. I SEEEEE YOU BABY BOI
17. WAKE UP FILTHY with Travis Scott
18. JUMPIN with Lil Uzi Vert
19. TRIM with Future
20. COCAINE NOSE
21. WE NEED ALL DA VIBES with Young Thug & Ty Dolla \$ign
22. OLYMPIAN
23. OPM BABY
24. TWIN TRIM with Lil Uzi Vert
25. LIKE WEEZY
26. DIS1GOT IT
27. WALK
28. HBA
29. OVERLY
30. SOUTH ATLANTA BABY

그러나 2023년 말 “Different Day”의 서프라이즈 발매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MUSIC〉의 룰아웃은 그의 컬트들에게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 폭발적인 베이스와 괴성에서 발산되던 에너지가 온전히 다크하고 고어한 무드의 생성으로 옮겨간, 일명 ‘Burnt Music’의 그것이다. 이어서 발매된 “EVIL JORDAN”, “KETAMINE”, “BACKROOMS” 등의 선공개 싱글들 또한 다크 플러그와 유사한 색을 띄었고, Travis Scott과 함께한 “FE!N”으로 선보인 로우 톤으로의 전환이 인상적인, 기존에 비하면 다소 정상적이라 칭할 만한 랩에 집중하고 있었다. 카티의 음악이, 더 이상 감정과 격노의 분출을 위한 것과는 가깝지 않아 보인 것이다. 다소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던 컬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심어준 것은 The Weeknd의 마지막 앨범 〈Hurry Up Tomorrow〉를 위한 싱글 “Timeless”였다. 두 가지 톤의 아름다운 전환과 올 블랙 뱀파이어를 벗어난 새로운 미학은 뉴 카티의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쯤에서 깨달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카티의 변신은 단지 음향적, 외형적 스타일을 넘어 그 구심점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2025년 3월 14일, 몇 시간의 (순화하여 표현하자면) 난리 끝에 마침내 발매된 〈MUSIC〉의 모습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유사한 듯 달랐다. 곡과 믹싱 자체의 퀄리티나 리스너들의 호불호와는 별개로 너무나 달라져버린 카티가 도달하고자 하는 자아의 모습. 커리어 내내 쫓아오던 랙스타의 모습은, 이제 메인스트림 팝스타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어쩌면 스캇과 위肯드 등 메인스트림 블랙 뮤직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과 더욱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던 것이 이를 예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MUSIC〉에서 발견되는 팝스타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는 너무나 적나라하고, 그렇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총 네 트랙에 참여한 스캇의 피쳐링들은 모두 빠짐없이 얼마나 루즈하며 자가 복제에 그치지 않는가. 세 트랙에서 함께한 이제는 메인스트림의 황제가 되어버린 켄드릭 라마와의 협업은 어서 그토록 피상적이며 강요적인가. 위肯드와 함께한 “Timeless”의 이란성 쌍둥이 “RATHER LIE”에는 어째서 AI의 사용이라는 게으른 선택이 적용되었는가. 팝스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트랙들 대부분이 다양한 비전의 열화판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다. 팝스타의 추구가 게으른 창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MUSIC〉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아방가르드함이 과하게 적용된 트랙들의 존재이기도 하다. 앨범 전반, 특히 “OPM BABI”와 “HBA”에서 두드러지는 과한 스네어 룰은, 분명 아방가르드의 정의에는 충실히 부합한다. 너무나도 전통적이지 않은 작법이며, 소음을 음악에 도입하는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스네어의 경우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겠지만)과도 맞닿아 있고, 이 자체로서 하나의 예술적 실험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방가르드함이 결과적으로 〈MUSIC〉의 퀄리티를 저하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팝스타의 추구’와 공존에 있다. 〈MUSIC〉에서의 대중 예술과 전위 예술의 공존은 전혀 조화롭다고 표현할 수 없으며, 또 선형적이지 않고 산발적이어서 감상 중 혼란을 유발한다.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구성의 신디사이저가, 파괴적이고 난잡한 스네어와 끊임없이 얹혀 있지 않은가. 이 카오스는 30트랙이라는 기나긴 러닝타임과 스니펫에 가까운 트랙들, 16*29의 재결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성의한 Lil Uzi Vert와의 모든 트랙들, 선공개 곡들에 끼워넣어진 격발음, 결정적으로 시도때도 없이 간섭하는 DJ Swamp Izzo의 오지랖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다행히도, 아직 〈MUSIC〉에서 카티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EVIL JORDAN”은 폭발적인 라이브 인트로의 존재로 〈Whole Lotta Red〉의 가치관을 이어올 수 있었고, “I SEEEEEE YOU BABY BOI”를 통해 2hollis로 대표되는 하이퍼 팝/포스트 레이지를 선보이는 카티를 만나볼 수 있었으며, “TOXIC”的 Skepta 와 “GOOD CREDIT”的 켄드릭, “TRIM”的 Future가 보여 준 랩 퍼포먼스 자체는 너무나 훌륭했다. Waka Flocka Flame을 연상시키는 “RADAR”와 “MUNYUN”, “CR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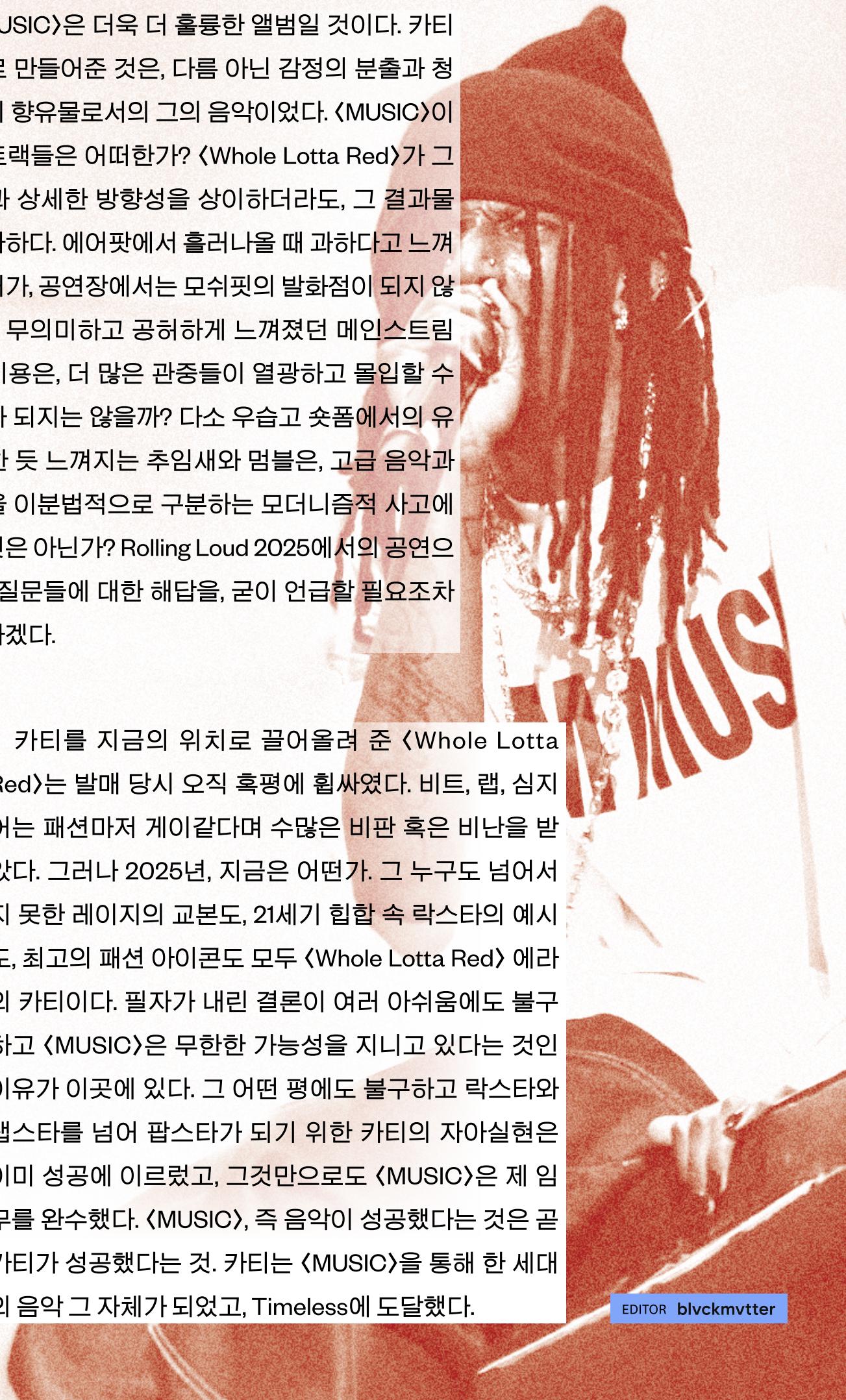
“COCAINE NOSE”, “SOUTH ATLANTA BABY”가 보여 준 폭발력과 아름다움 또한 더할 나위 없다. 카티의 강점이 드러나는 〈MUSIC〉의 또 하나의 지향점은 “SOUTH ATLANTA BABY”의 제목에서도 엿볼 수 있는 남부 힙합에 대한 현정과 귀환, 그리고 애틀랜타의 황제로서의 즉위이다. 를아웃 당시 〈MUSIC〉이 Lil Wayne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밝힌 것과 “I AM MUSIC”이라는 문구 자체 또한 웨인에게서 왔다는 점, 〈Dedication〉 시리즈를 오마주한 아트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남부 힙합, 특히 웨인에게 다가가는 방향성은 정제되지 않은 사운드와 믹싱의 뱅어, SpaceGhostPurrp의 “Fuck Taylor Gang (Not a Diss We Are Just Not Dickriders)”를 샘플링한 “CRANK”, 앞서 단점으로 언급되기도 한 DJ의 애드립으로 확고하게 드러난다. 새로운 지향점을 쫓아 사운드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과거의 산물에 대한 향수에서 태어난 근래 창작물들의 복각 정신과도 들어맞는 이 귀환은 〈Die Lit〉의 정신과도 겹쳐보이며, 카티가 여전히 리스너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이 되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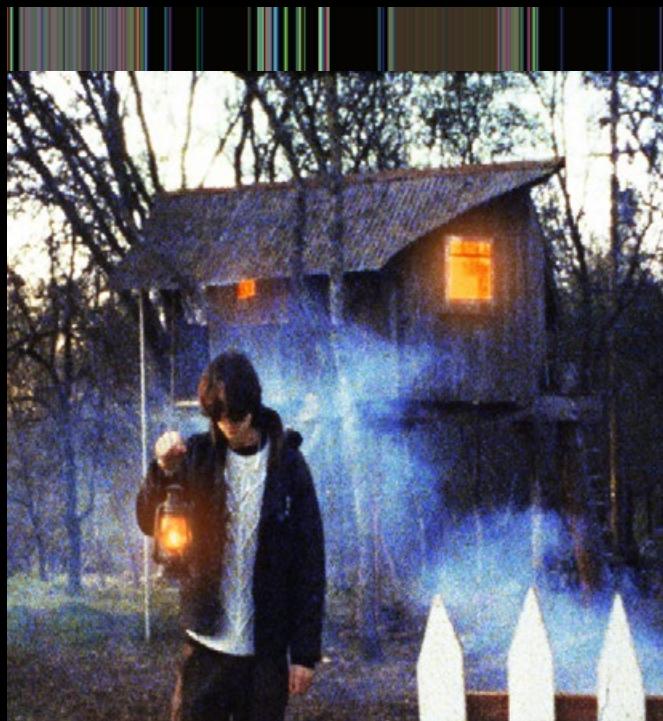
〈MUSIC〉을 비평하는 데에 있어 5년의 기다림과 수많은 연기, 개별적 트랙의 퀄리티와 앨범의 구성은 중심으로 논한다면, 성공적 앨범이라 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거짓되고 공허한 증언일 것이다. 그러나, 〈MUSIC〉의 평가 기준이 플레이보이 카티, 더 나아가 조던 터렐 카터의 자아 실현에 위치한다면, 이토록 성공적인 앨범은 존재할 수 없다. 전 세계적 차트 출세우기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입, 아이돌화와 팝스타화를 모두 성공시켜준 앨범이 아닌가. 앨범이 발매된 지 5일이 채 되지 않은 순간에도 이것만은 확신을 실어 말할 수 있다. 심지어 수많은 아티스트를 기용하는 인맥과 애틀랜타로 기점을 옮기는 것으로 래퍼로서의 입지도 공고히 하지 않았나.

더하여 〈MUSIC〉을 레이지 정신을 계승하는 앨범으로 평한다면, 〈MUSIC〉은 더욱 더 훌륭한 앨범일 것이다. 카티를 락스타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감정의 분출과 청각적 쾌감의 향유물로서의 그의 음악이었다. 〈MUSIC〉이 선보이는 트랙들은 어떠한가? 〈Whole Lotta Red〉가 그 거했던 것과 상세한 방향성을 상이하더라도, 그 결과 자체는 유사하다. 에어팟에서 훌러나올 때 과하다고 느껴지는 스네어가, 공연장에서는 모쉬핏의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다소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느껴졌던 메인스트림 인사들의 기용은, 더 많은 관중들이 열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다소 우습고 솟폼에서의 유행을 겨냥한 듯 느껴지는 추임새와 멤블은, 고급 음악과 저급 음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모더니즘적 사고에 불과하는 것은 아닌가? Rolling Loud 2025에서의 공연으로 얻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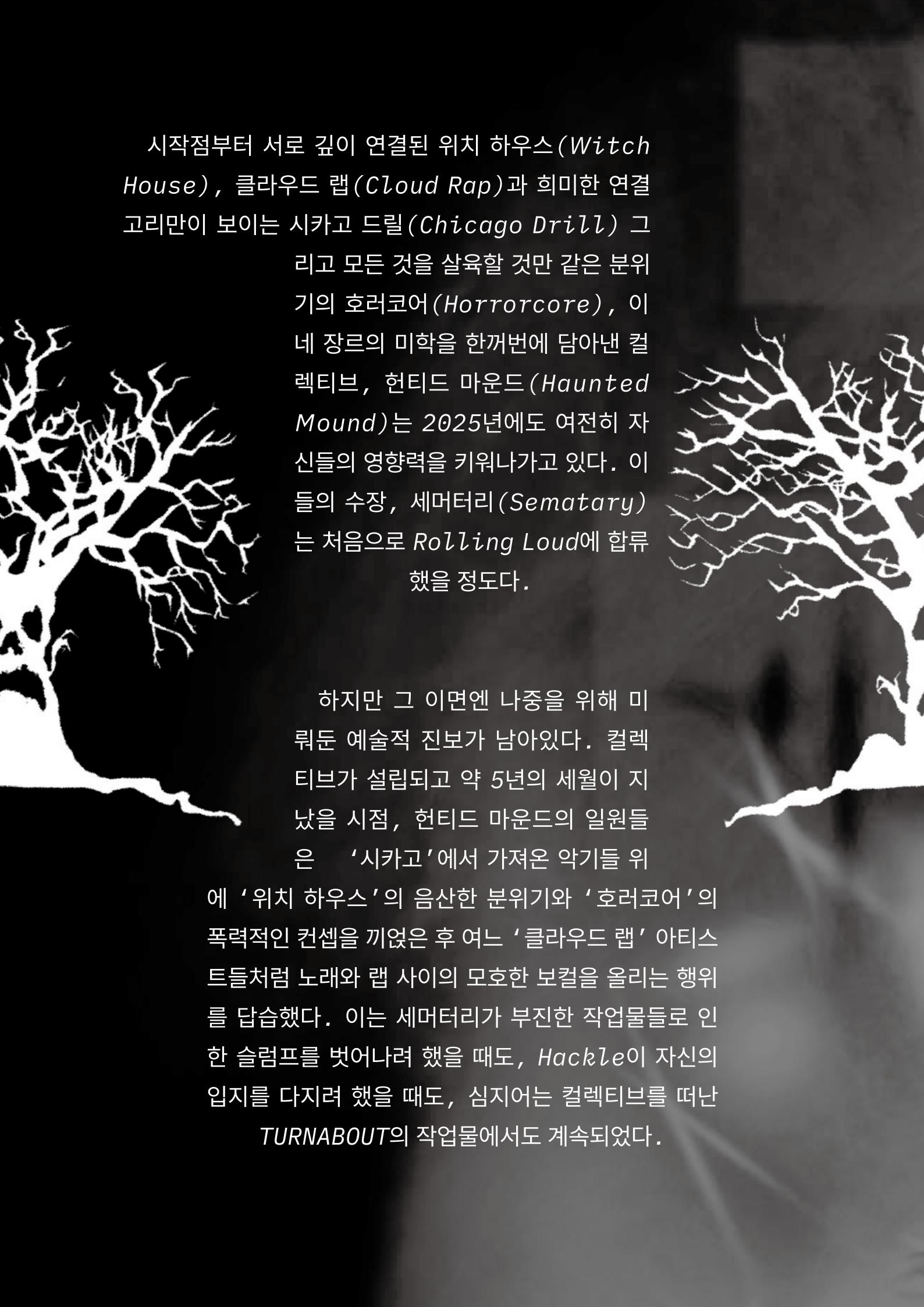
카티를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려 준 〈Whole Lotta Red〉는 발매 당시 오직 혹평에 훨씬였다. 비트, 랩, 심지어는 패션마저 게이같다며 수많은 비판 혹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2025년, 지금은 어떤가. 그 누구도 넘어서지 못한 레이지의 교본도, 21세기 힙합 속 락스타의 예시도, 최고의 패션 아이콘도 모두 〈Whole Lotta Red〉에라의 카티이다. 필자가 내린 결론이 여러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MUSIC〉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 이유가 이곳에 있다. 그 어떤 평에도 불구하고 락스타와 랩스타를 넘어 팝스타가 되기 위한 카티의 자아실현은 이미 성공에 이르렀고, 그것만으로도 〈MUSIC〉은 제 임무를 완수했다. 〈MUSIC〉, 즉 음악이 성공했다는 것은 곧 카티가 성공했다는 것. 카티는 〈MUSIC〉을 통해 한 세대의 음악 그 자체가 되었고, Timeless에 도달했다.

EDITOR blvckmvttter





October Country - Ghost Mountain



시작점부터 서로 깊이 연결된 위치 하우스(*Witch House*), 클라우드 랩(*Cloud Rap*)과 희미한 연결 고리만이 보이는 시카고 드릴(*Chicago Drill*) 그리고 모든 것을 살육할 것만 같은 분위기의 호러코어(*Horrorcore*), 이네 장르의 미학을 한꺼번에 담아낸 컬렉티브, 헌티드 마운드(*Haunted Mound*)는 2025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들의 수장, 세머터리(*Sematary*)는 처음으로 *Rolling Loud*에 합류했을 정도다.

하지만 그 이면엔 나중을 위해 미뤄둔 예술적 진보가 남아있다. 컬렉티브가 설립되고 약 5년의 세월이 지났을 시점, 헌티드 마운드의 일원들은 ‘시카고’에서 가져온 악기들 위에 ‘위치 하우스’의 음산한 분위기와 ‘호러코어’의 폭력적인 컨셉을 끼얹은 후 여느 ‘클라우드 랩’ 아티스트들처럼 노래와 랩 사이의 모호한 보컬을 올리는 행위를 답습했다. 이는 세머터리가 부진한 작업물들로 인한 슬럼프를 벗어나려 했을 때도, *Hackle*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을 때도, 심지어는 컬렉티브를 떠난 *TURNABOUT*의 작업물에서도 계속되었다.



HAUNTED MOU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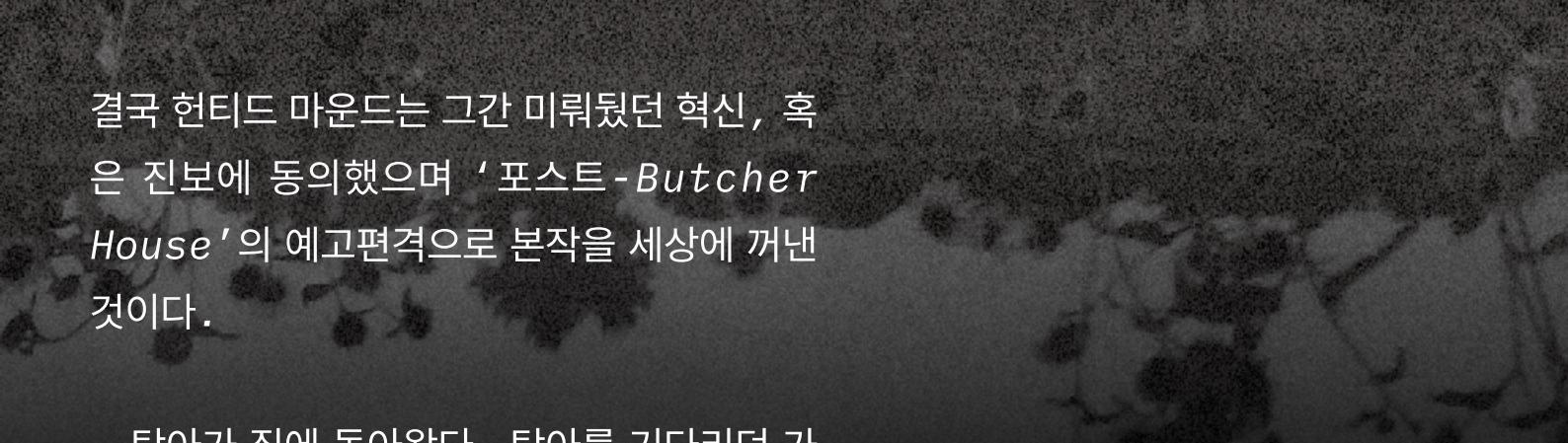
자가복제를 거듭하던
헌티드 마운드의 공동 창
립자, 세머터리의 파트
너 그리고 영화 전공을 위
해 음악 활동을 중단했

던 고스트 마운틴(*Ghost Mountain*)이 4년만
에 자신의 둑지로 돌아왔다. 그는 세머터리와 함께
'*Butcher House*'를 개발한 장본인이지만 세머
터리와의 견해차이로 갈등을 빚어 컬렉티브를 떠나
고 말았다. 고스트 마운틴의 학업이 끝나갈 때쯤,
둘은 관계를 회복했고 헌티드 마운드의 두 창립자가
다시 파트너쉽을 이뤘다.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
에 발매된 고스트 마운틴의 첫 개인 작업물은 생각
보다, 기대보다 더 깊은 인상을 준다.

헌티드 마운드로 돌아온 고스트 마운틴은 앞서 언급했던 동료들의 ‘치트키’가 지루했던 모양이다. 자신들의 뼈대가 된 위치 하우스에 깊게 파고들고 시카고 드릴의 러프함과 호러코어의 피칠갑을 지운 대신 많은 부분을 이모-랩(*Emo-Rap*)에 양도했다. 위치 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음산한 신디사이저가 계속 흘러나오면 고스트 마운틴은 *Wicca Phase Springs Eternal*처럼 우울한 노래를 부르고, 열정이 넘치는 인디 락 아티스트처럼 기타 리프에 의존한 멜로디를 쌓아나간다. 시카고 드릴을 지워낸 방식은 이 작품의 ‘킥’이다. 지저분하고 시끄럽게 킁킁거리던 시카고 드릴의 808 베이스와 드럼의 빈자리를 80년 대의 포스트 평크, 일렉트로닉, 팝 락 등 다양한 장르에서 빌려온 악기들로 채워내며 경계를 모호하게 뭉개고 교묘하게 진화한 듯이 들리게 만들어버린다.

세머터리와 고스트 마운틴이 다시 뭉친 “*Highway Hex*”, “*Damien*”은 이 둘의 관계를 계속 팔로우했다면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며 많은 이들이 기다렸던 만큼 둘은 과거만큼 혹은 그 이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사실 본작의 성공은 고스트 마운틴 개인의 승리와는 거리가 멀다. 과거 고스트 마운틴이 세머터리와 함께 발매했던 2장의 합작 앨범과 같이 대부분의 트랙을 세머터리가 프로듀싱했으며 세머터리와 함께 유이한 피쳐링 게스트, *Buckshot* 또한 헌티드 마운드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헌티드 마운드는 그간 미뤄뒀던 혁신, 혹은 진보에 동의했으며 ‘포스트-*Butcher House*’의 예고편격으로 본작을 세상에 꺼낸 것이다.

탕아가 집에 돌아왔다. 텡아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잔치를 벌이기 보단 함께 미뤄둔 일을 해치우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택했다. 헌티드 마운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October Country>*는 미래를 향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본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도 했다.

장담컨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헌티드 마운드는 늘 그랬듯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늘 그랬듯이 온갖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들의 그라운드로 만들어버릴 예정이다.

EDITOR SONGCHICO

October Country – Ghost Mountain

Released 2025. 3. 7.

-
- | | |
|----|---|
| 1 | <i>Moulder</i> |
| 2 | <i>Stalks</i> |
| 3 | <i>Kismet</i> |
| 4 | <i>Hovel</i> |
| 5 | <i>By the Flame</i> |
| 6 | <i>Highway Hex (Feat. Sematary)</i> |
| 7 | <i>The Lake</i> |
| 8 | <i>Kevlar</i> |
| 9 | <i>Familiar Stranger (Feat. Buckshot)</i> |
| 10 | <i>Damien (Feat. Sematary)</i> |
| 11 | <i>October Country</i> |
| 12 | <i>Wayside</i> |



From the Private Collection of Saba & No 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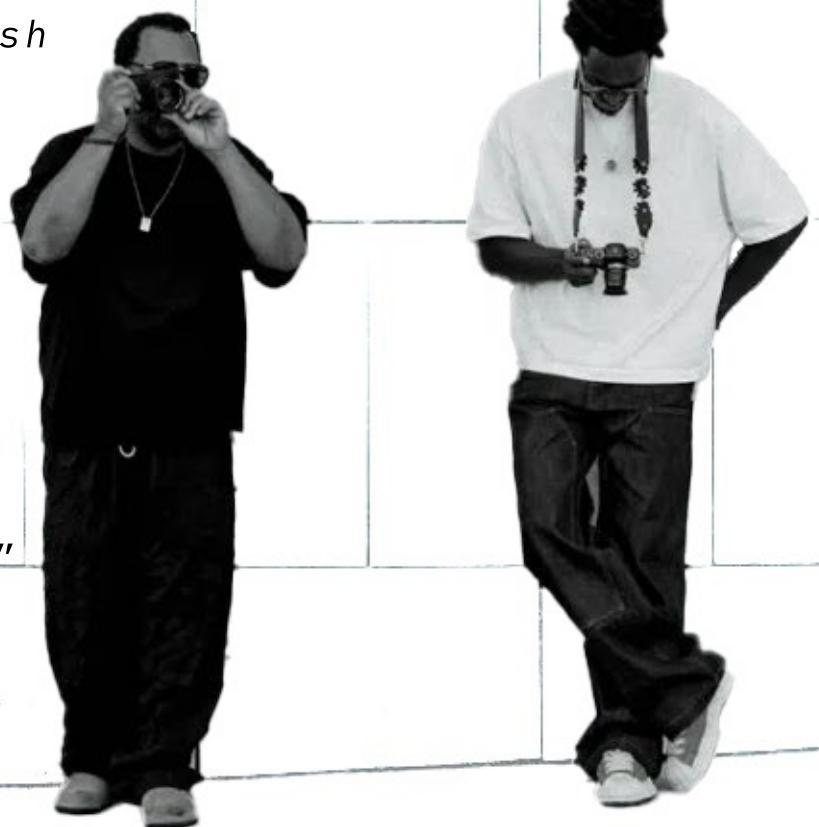
From The Private Collection of Saba and No ID Saba × No ID

시카고, *Chi-Town*, 혹은 *Chiraq* - 힙합의 세 기둥인 동부, 서부, 남부를 제하고도 간과 불가능한 아우라와 영향력을 뽐어내던 지역. *Kanye West*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빼놓고 보더라도 *Common*, *Lupe Fiasco*, *Noname*를 비롯한 정통파와 드릴의 선봉장 *Chief Keef*와 *Lil Durk*, 그 사이 고유한 영역을 구축한 *Polo G*, *Chance The Rapper*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명MC를 배출한 토양이다. 개중 사바 (*Saba*)는 근래 10년간의 활약만 놓고 보았을 때 예의 래퍼들에 밀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만하다. 리릭스트리의 명맥을 이으며, 또 이제는 장인들에 의해 드물게 계승될 따름이었던 재즈 힙합을 선보였던 그는 꾸준히 디스코그래피에 수준급 음반들을 추가해 왔다. 자신과 *Pivot Gang*의 존재를 알린 *<Bucket List Project>*, 수작이 즐비한 2018년 고유의 빛을 뽐어냈던 *<Care For Me>*, 전작의 확장적인 속편과도 같은 *<Few Good Things>*까지, 앨범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 유기성을 중시해 왔기에 리스너와 마니아들에게 달가운 시선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묵묵히 제 할 일을 해 오던 그에게 시카고의 전설적인 프로듀서 노 아이디 (*No ID*)가 다가왔다. 칸예 웨스트, 제이 콜을 비롯한 현대 힙합의 아이콘들이 ‘멘토’라는 칭호로 칭송해 마지않았던 그에게 사바는 분명 너무나도 깜마득한 후배 일 터. 당시 2017년 먼저 세상을 떠난 *John Walt*와도 친밀한 사이였던 *Pivot Gang*의 프로듀서 *Squeak*마저 잃고 시카고로부터 떠날 준비를 하던 사바에게 노 아이디는 엄한 스승의 역할을 자처했다. 바로 100개 이상의 비트를 보내는 것, 다음으로 그 위에 어떤 랩을 얹는지 조용히 지켜보는 것. 사바 역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배의 기대에 부응하고 음악으로 고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 결과 탄생한 15곡의 모음이 바로 *<From The Private Collection of Saba and No ID>*다.

오랜 기간 그가 추구해 왔던 방향성과는 판이함이 먼저 감지 된다. 상술한 *<Care For Me>*와 *<Few Good Things>* 가 고통을 바탕으로 뻗어 나간 산물이며 곡 간의 연결점이 확실 한 것과는 다르게 본작은 그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자유분방 하다. 두 아티스트가 서로 주고받은 파일을 엿보고 있다는 인상 마저 들 정도다. 다만 모든 트랙에 적용되는 하나의 대전제가 있 다면 사바의 랩과 노 아이디의 비트 모두 음반의 어떤 지점에서 나 수준급의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객원 싱어에 맞추어 여유롭게 랩을 맵는 *"Every Painting Has a Price"*와 *"Crash"*, 마치 비트와 한 몸이 된 것 같은 킬링 트랙 *"Woes of The World"*와 *"How to Impress God"*, 노 아이디 식 드럼리스인 *"Stop Playing With Me"* 모두 다양한 스타일과 균일한 퀄리티를 보장한다. '믿고 듣는' 이란 수식어가 붙는 이들답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단연 피처링진의 역할도 중요할 터. 베테랑 *Raphael Saadiq*과 *Destiny's Child* 출신 *Kelly Rowland*의 등장도 흥미롭지만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Pivot Gang* 멤버들의 참여에 있다. *Joseph Chilliiams*, *MFnMelo*, *Frsh Waters* 그리고 프로듀싱에 힘을 보탠 *daedaePIVOT*과 *Daoud* 까지 - 일견 생소할 수 있는 이름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오래간 사바와 동고동 락한 식구다. 사실상 노 아이디의 지휘 아래 만들어진 컴필레이션과도 같은 셈이다. 믹스테잎 *<Comfort Zone>*에서 시작된 *"Westside Bound"*



시리즈를 9년 만에 부활시킨 “Westside Bound Pt. 4”의 시카고 찬가에서 이들의 태도가 드러난다. 바로 음악으로 상처를 드러냈듯 이를 치유할 때도 같은 방법을 쓰는 것. 사바는 더 이상 “Sometimes, I fucking hate Chicago ‘cause I hate this feeling” (“PROM/KING”)이라 외치지 않는다. 하루 끝내며 요가하는 일상을 보여주거나 (“Breakdown”), 돈과 명예가 허상임을 역설하거나 (“How to Impress God”) 과거를 바람에 흘려보낼 (“a FEW songs”) 뿐.

시련을 이겨낸 인간의 모습은 아름답다. 사바처럼 아티스트가 음악을 통해 승화해 냈을 때는 더 그렇다. 1994년생으로 그리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작품마다 발전하는 이의 행적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즐거운 일임이 분명하다. 이번 앨범처럼 훌륭한 파트너가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면 더더욱. 사바가 씻 내에서 점하는 위치는 그전에도 충분히 독창적이고 특별했으나,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결 공고해질 듯하다. 이제는 시카고의 전설들과 같은 명단에 오를 날이 머지 않았다.

EDITOR moogsick

From The Private Collection of Saba and No ID – Saba × No ID

Released 2025. 3. 18.

- 1 Every Painting Has a Price (feat. Eryn Allen Kane & BJ the Chicago Kid)
- 2 Breakdown
- 3 Crash (feat. Raphael Saadiq & Kelly Rowland)
- 4 Woes of the World
- 5 Stop Playing With Me
- 6 Westside Bound Pt. 4 (feat. MFnMelo)
- 7 head.rap (feat. Madison McFerrin, Ogi, Jordan Ward)
- 8 Acts 1.5
- 9 Reciprocity (feat. Ibeyi)
- 10 Stomping
- 11 BIG PICTURE (feat. Ogi)
- 12 30secchop (feat. Joseph Chilliams & Jean Deaux)
- 13 How to Impress God
- 14 She Called It (feat. Frsh Waters & Tru)
- 15 a FEW songs (feat. Ogi, Love Mansuy, Smino)

Club Shy Room 2



Shygirl



테크노의 공간은 주체할 수 없는 유포리아를 고양한다. 심지어 FKA Twigs는 그곳으로부터 인간 형태를 초월하는 감각, 〈Eusexua〉를 발견하기까지 했다. 클럽에서는 쾌락이라는 목적 아래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다.

당신이 어떤 신분으로 살아왔든, 어떤 환경 속에 자라왔고 어떤 성향을 지녀왔든 상관없다. 반대로 GHE20GOTH1K을 만난 Arca처럼, 혹은 비로소 그린 카운티를 벗어나 캠프 세계의 여왕이 된 Chappell Roan처럼 클럽으로 하여금 자신의 퀼어 정체성 및 예술적 방향성에 관한 새로운 환경에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다.

이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 덕에 Night Slug와 손을 잡고 다양한 UK 베이스 씬의 실력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얼터너티브 알앤비에 진정한 대안을 제시한 Kelela가 있었다. 테크노를 넘어 어떤 댄스 음악이라도 그 에너지는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등 각자의 쾌락과 운동성을 상승시키는 호르몬부터,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등 유대감과 공동체 형성과 연관된 호르몬도 자극할 수 있다. 알앤비나 팝 음악에도 필요하던 것이었고 그녀나 Slug의 두 공동 수장 Bok Bok과 L-Vis는 이를 잘 알고 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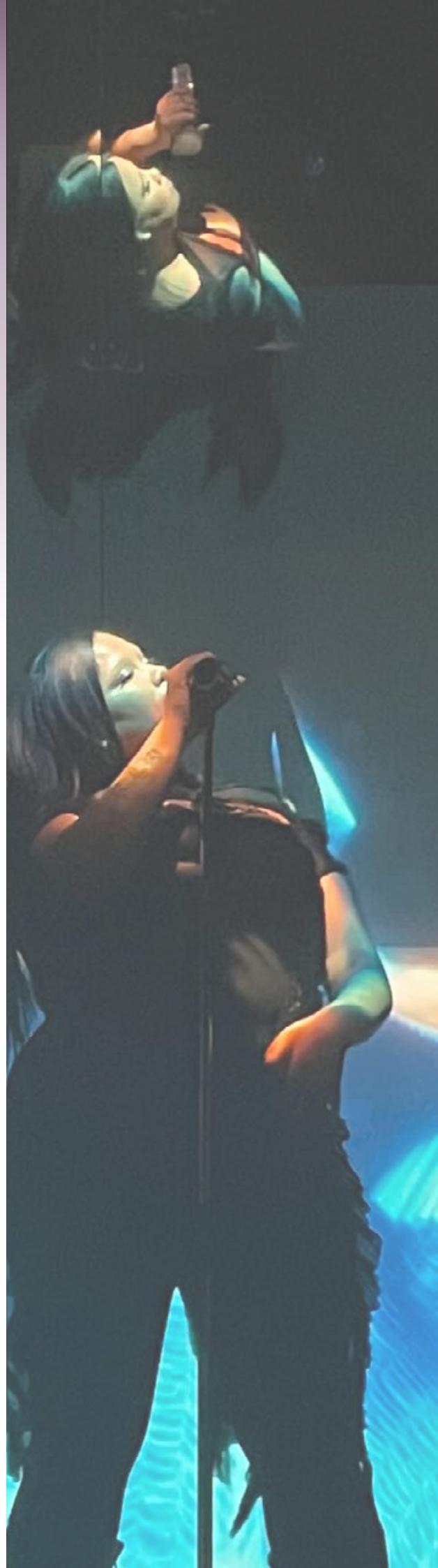
그리고 십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후, 이를 잘 이해한 또 다른 여성 얼터너티브 뮤지션이 등장했다. 이미 2022년 <Nymph>를 통해 클럽 뮤직에 대한 사랑으로 UK 얼터너티브 힙합/알앤비 씬에 제 이름값을 각인시킨 샤이걸(Shygirl)이다. 그녀에 의해 새롭게 문을 연 <Club Shy>는 목적도, 구성도 그 이름 그대로다. EP 단위의 좁은 이곳은 미러볼이 회전하고, 눈이 명멸할 듯 한 레이저빔이 빛발치며, 프리즘 안에 있는 듯한 기하학적 공간으로 은밀함과 현란함이 교차하는 곳이다. 전형적인 미드나잇 파티에서 텐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곡마다 제각기 동료 — Empress Of, Kingdom, Lolo Zouai, Cosha 등 — 를 자신의 옆에 세워 디제잉을 펼치는 방식이다.

다만 2024년의 1부는 Kelela의 <Cut 4 Me>보다는 덜 전위적인 대신 더 단순하고 정석적인 사운드를 취했다. 세부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Kelela는 처음부터 언더그라운드 전자음악 씬의 대안적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했다. 반면 샤이걸은 접근이 쉬운 EDM 바이브를 소환하여,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댄스 뮤직의 기능을 되짚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말하자면 특정 세대를 아우르기 위함으로 훨씬 범대중적인 쪽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사운드 시스템과 레이브가 그 시대의 히피에게 원하는 것을 죄는 자율성뿐만 아니라, 몸을 부대끼며 춤을 추는 서로를 향한 개방적인 시각을 가르쳤던 것과 같다. 촌스러운 메신저에서 서로 취향은 물론 은밀한 연애사, 배덕적인 욕망, 개인의 정체성 등 까지 기꺼이 공유하던 같은 Y2K 세대를 룸 안에 집결시켰다. 이제 어른이 된 그들이 세상에 주도권을 쥐고 문화를 창조하며, 구체적으로 새로운 레트로 페티시즘을 결정짓기에 이른 작금의 시대를 상기시키고 연대를 도모한 것이다. 이를테면 Pink Pantheress나 Ice Spice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이 물이 들어올 때 저어야 하는 또래 세대의 전성기임을 확인하듯, 샤이걸은 이듬해에 곧바로 후속작을 내놓았다. 〈Club Shy Room 2〉는 자신의 도도한 자태를 중앙에 제시한 커버처럼, 전작보다 훨씬 더 자신감 넘치며 스펙트럼도 넓어졌다. 전작이 주홍 색채와 퓨쳐리스틱한 비주얼 컨셉으로 하여금 새 천년 시기에 품어 왔던 사이버 세계를 향한 강렬한 상상을 회상하게 했다. 그렇기에 기계적인 테크노 뮤직이 어느 때보다 잘 어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글리치 아트에서 보듯 보다 개념적으로 해체되고 확장된 범주까지 헤아릴 줄 아는 포스트-인터넷—이름하여 Z세대—의 세계마저 아우른다. 그에 따라 그녀의 페르소나도 더욱 도전적이다.

가령 Missy Elliott × Timbaland 앤덤을 글리치 버전으로 듣는 듯한 “Je M'appelle”나 2010년대 트랩 음악의 부상과 함께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행이 된 과시적 소비주의를 반영한 브래거도시오 “Flex”는 명백한 브래거도시오다. 〈The Collective〉의



Kim Gordon처럼 섬뜩하게 훑조리는 그녀의 랩은 그녀의 새로운 시도만큼이나 도발적이다. “Immaculate”는 또 어떠한가, 틱톡에서 부담스럽게 트월킹을 추는 인플루언서를 절로 연상하게 되지 않은가.

그러나 본작에서 도발보다 고무적인 부분은 본디 클럽의 기능이라고 했던 연대에 있다. femme01란 키워드 하에 현재 가장 잘나가는 대표자들을 초대했다. 누구보다 서로의 음악적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일렉트로니카 프로듀서 BAMBII부터 Saweetie, Yseult, Isabella Lovestory SadBoi, 심지어 Jorja Smith나 Pinkpantheress까지 그녀의 연대 요청에 응했다. 그녀의 프로젝트가 단지 춤을 추기 위함이 아닌, state of mind로서의 선언에 동참한 것이다. 나의 지위와 행동 양식, 욕망과 자기표현법, 사랑에 관한 태도마저 스스로 결정하려는 진보주의적인 이들의 일명 “Wifey Riddim”이라고나 할까.

캐러비안 스타일의 “True Religion”으로 하여금 그녀의 요청이 자국과 북미에 국한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며, 그리고 그녀의 의지가 가장 향락적이면서도 정열적인 형태까지 가닿으면서, 샤이걸은 실내 클럽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려 한다. 그녀의 동기가 꺾일 일은 없을 것이기에, 〈Club Shy〉 시리즈는 이후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혹은 투어의 형태로 계속될 수도 있다. 그녀가 계속 호스트로 있는 한, 그리고 그녀와 연대할 동료들이 계속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한.

EDITOR 감상주의

Club Shy Room 2 - ShygirL

1 Je m'appelle

2 F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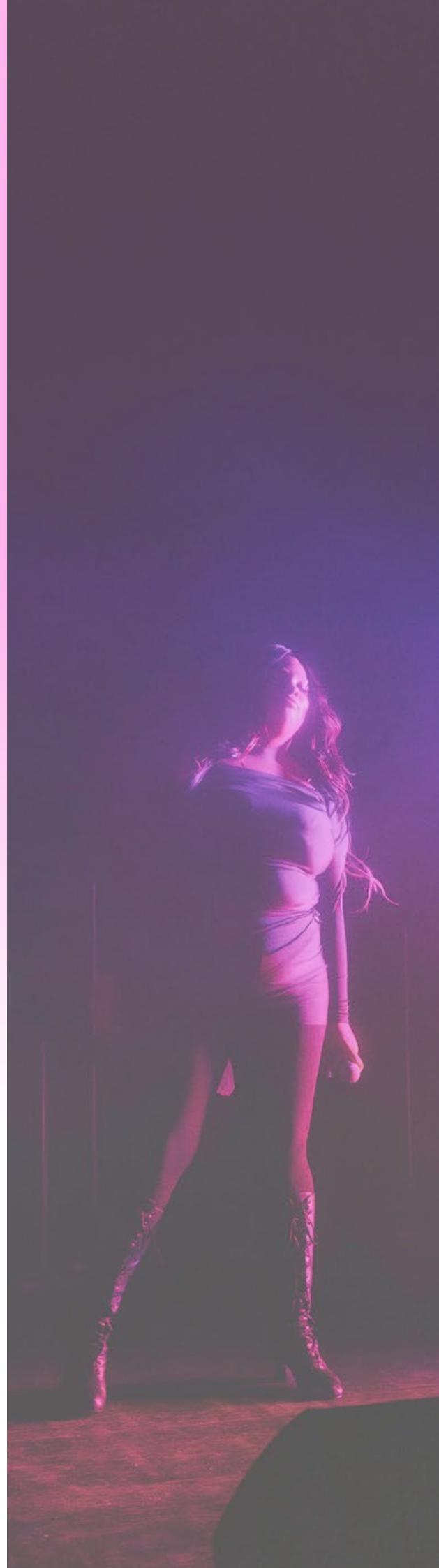
3 Immaculate lyrics

4 F*Me

5 Wifey Riddim

6 True Religion

Released 2025. 2. 28.



CLIPPING. DEAD CHANNEL SKY



CLIPPING. DEAD CHANNEL SKY

'항구의 하늘(The sky above the port)은 방송이 끝난
(dead channel) 텔레비전 색이었다.' (뉴로맨서, 1984 中)

1980년대 초, 사이버펑크 사조의 청사진이 제시된다. <블레
이드 러너, 1982>는 이를 시각화하여 스크린에 수려하게 펼
쳐놓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이버펑크 장르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데뷔 이래 다방면에서 급진적인 행보를 보여준 클리핑.(clipping.)의 〈Dead Channel Sky〉는 이러한 사이버펑크의 감각적 이미지를 끌어들이기보다, 사회적(혹은 정치적) 측면을 차용하여 - 세기말(90년대 말) 사운드와 결합해 독특한 미학을 조성한다.

퇴폐적인 성관념과 불평등의 심화, 그와 대비되는 하이테크 기술, 개인의 존재론적 위기와 네트워크 단말, 그리고 소실 ... 사이버펑크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주요 내러티브다. 듣기만 해도 *serial experiments lain* 시리즈의 여주인 공마냥 축축해진다(누군가 인생 애니로 꼽는다면 도망치세요). 하지만 클리핑.은 마냥 비관적이고 음울하게 디스토피아를 묘사하지 않는다. 21세기 도래한 디지털 사회의 문제인식과 과거 회상(향수와는 거리가 있다), 다가올 미래에 관한 의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일말의 짜릿함. 이 모든 것이 규합되어 〈Dead Channel Sky〉라는 - 다소, 이들의 전작과는 괴리감이 존재하는 - 기형적인 작품을 탄생시켰고, 사이버펑크는 단지 그 과정의 중간에 끼어있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 사이버펑크 미학을 현대 사회와 결합하고 진단하려는 시도는 너무나도 많았기에, 주제 차용 자체는 다소 진부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흥미로운 지점은 역시, 과거(90년대 말)의 사운드를 토대로 - 사이버펑크 세계관과 흡사한 현시대를 진단하고 형상화하는 것에 있다. 다이얼업(dial-up) 모뎀 소리로 시작되는 앨범은 레트로퓨처리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리스너들을 인터넷 보급 에라로 단숨에 이끈다. 네덜란드 테크노 그룹 Human Resource의 레이브(Rave) 트랙을 샘플링한 “**Dominator**”, 역동적인 빅 비트(Big Beat) 사운드가 돋보이는 “**Change the Channel**”은 기술 진보에 관한 불안감보다는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산물을 영접한 이들의 말초적 쾌감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토록 짜릿한 Y2K의 인터넷 문화를 승배한다기보다, 복잡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경계하는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PING
NNEL SKY
PING
NNEL SKY

READY.

2
F U L L

‘목에 박힌 마이크로칩’ (“Dodger” 中), 앨범의 첫 문장부터 등장하는 해커 선언문(1986) 인용 ('Damn Kids, They're all alike'), 감시 카메라와 코드 해킹 등 - 클리핑은 통제/감시에 관한 편집증적 불안과 함께 지하실로 숨 가쁘게 내달린다. 사이버펑크 게임 OST 제작 의뢰를 받은 트랙, “Run It”에서 구상된 앨범인 만큼, 이 과정은 꽤 만화적으로 제시되지만 네온 블루로 빛나는 또 다른 호러코어(Horrorcore)라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의 냉소이다. 거기다 더해 90년대 갱스터 랩(Gangsta Rap)에서 다루는 폭력, 마약 밀매 과정은 과격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미래 세계와 접합되지만, 점차 자아를 잃어버린 채 이뤄진다.

대미를 장식하는 “Ask What Happened”는 가장 노골적이다. ‘역사도, 미래도 결국 1%의 것’이라는 후렴구의 반복과 조여드는 DnB의 속도감은 - 굳이 직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현실이 충분히 공포스럽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베트남 전쟁, 오일 쇼크, 원전 사고 등을 언급하며 전환되는 (매우) 갑작스러운 현실 성찰. 이는 SF 톤을 유지하던 컨셉 앨범의 마지막에 제시되기에 다소 부적절하다 여겨진다. 하지만 바로 이전 트랙, “Welcome Home Warrior”에서 Aesop Rock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 게임 공간에서의 지위(정확하게는 이에 대한 집착)를 신랄하게 비꼬았단 점을 고려하면, 가상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바로 눈앞에 펼쳐질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라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READY.

이 외에도 〈Dead Channel Sky〉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은 '코드'처럼 구석구석 숨겨져있다. 아프로퓨처리즘(Afrofuturism) 필름 〈역사의 마지막 천사, 1995〉에서 샘플을 따온다거나, 사이버섹스(Cybersex)를 언급하는 "Mirrorshade pt. 2" 등 산발적으로 파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의 난립은 다소 어지럽게 느껴진다. 진지함과 만화적인 톤 사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일련의 재미는 반드시 보장되지만, 세계관 몰입도 면에서는 전작들에 비해 떨어진다. 그럼에도 끝까지 내달릴 수 있게 하는 동력은 - 앰비언트 하우스(Ambient House), 에시드 테크노(Acid Techno)와 같은 디지털 질감을 현대에 접합시킨 방식에 있으며, 이를 뜯어먹는 재미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이다.

CLIPPING
DEAD CHANNEL SKY
CLIPPING

DEAD CHANNEL SKY

기술은 도움이 되며, 육체에 구속되어 있는 자의식을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 문제는 이를 새로운 자의식의 형성(자의식의 재발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저 개인의 소실로 볼 것인가?

(이럴 경우, 새로운 자의식들은 더미(dummy)가 된 것이다)이다. 분명한 건 존재의 고유성은 점차 퇴색된다는 것. 힙합과 SF의 접점은 그리 흔치 않았다. 클리핑.이〈Dead Channel Sky〉에서 내놓은 진단은 어딘가 석연찮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실험 힙합 그룹다운 퍼포먼스를 과시하며 - 가장 쿨한 방식으로 씹고 뜯으며 그들의 호러 픽처쇼를 즐기고 있다.

—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세상은 전기와 스위치의 세상이며, 아름다운 신호의 세상이다. (해커 선언문 中)

EDITOR SRUKSAN

Dead Channel Sky - clipping.

Released 2025. 3. 14.

-
- 1 *Intro*
 - 2 *Dominator*
 - 3 *Change the Channel*
 - 4 *Run It*
 - 5 *Go*
 - 6 *Simple Degradation (Plucks 1 - 13) (with Bitpanic)*
 - 7 *Code*
 - 8 *Dodger*
 - 9 *Malleus (with Nels Cline)*
 - 10 *Scams (feat. Tia Nomore)*
 - 11 *Keep Pushing*
 - 12 *"From Bright Bodies" (Interlude)*
 - 13 *Mood Organ*
 - 14 *Polaroids*
 - 15 *Simple Degradation (Plucks 14 -18) (with Bitpanic)*
 - 16 *Madcap*
 - 17 *Mirrorshades Pt.2*
 - 18 *"And You Called" (Interlude)*
 - 19 *Welcome Home Warrior (feat. Aesop Rock)*
 - 20 *Ask What Happe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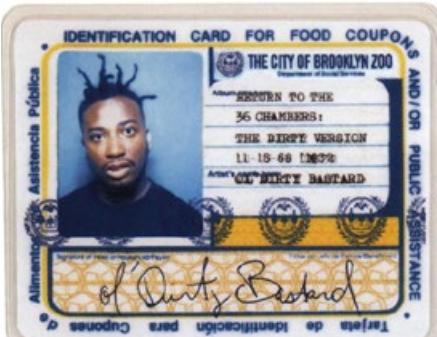
RETURN TO THE 36 CHAMBERS: THE DIRTY 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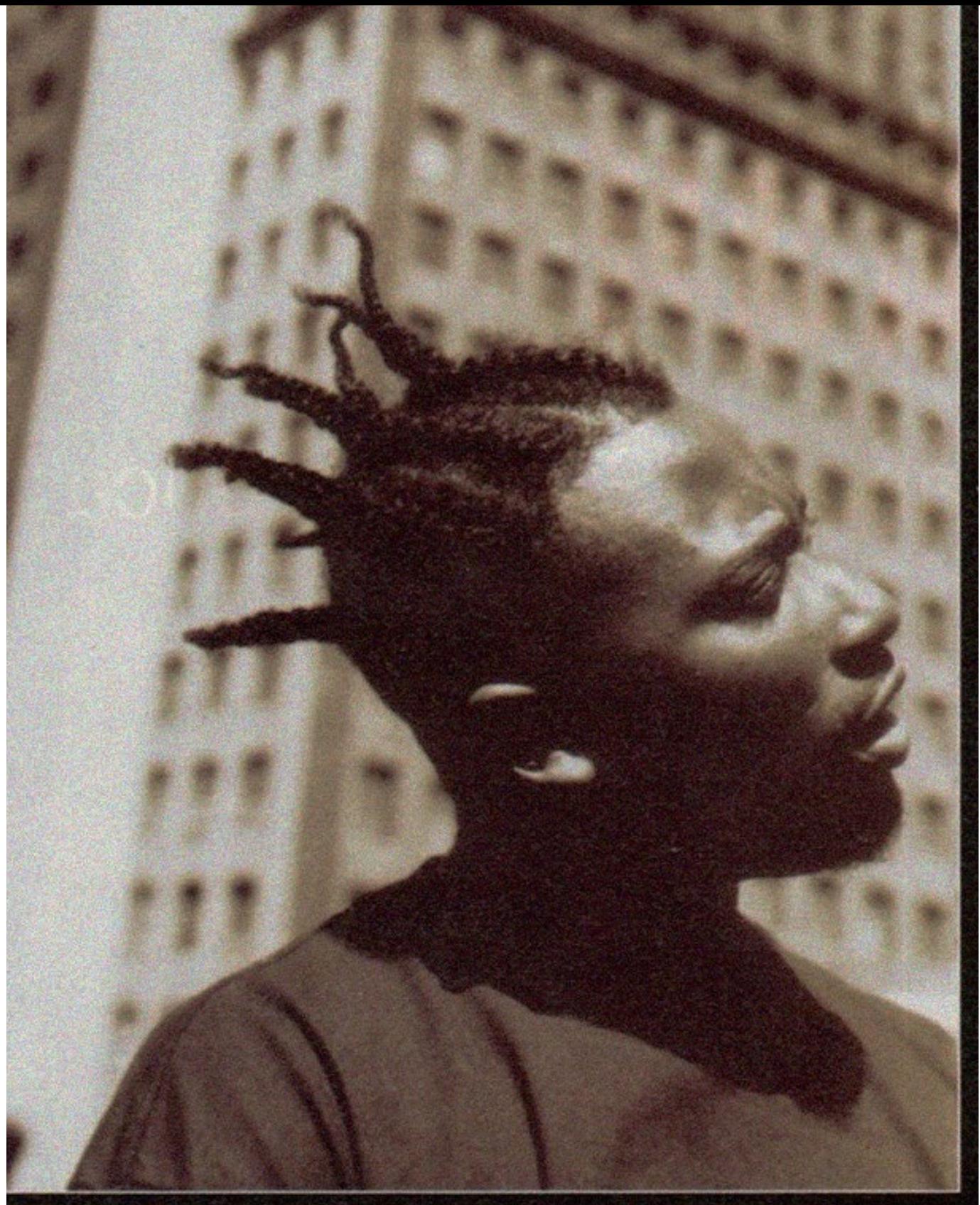
OL' DIRTY BASTARD

Tuesday, 28th,
March,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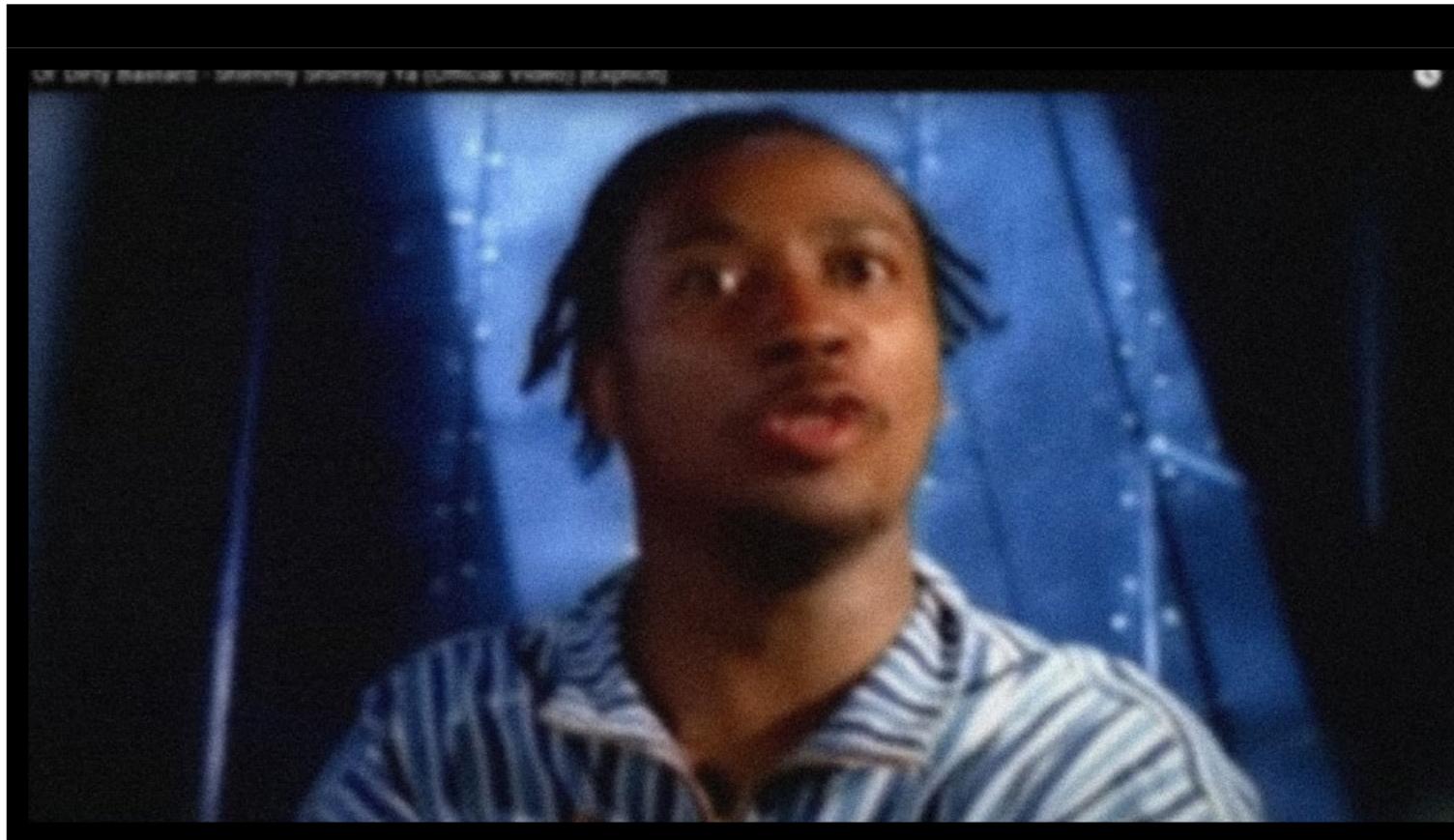
CLASS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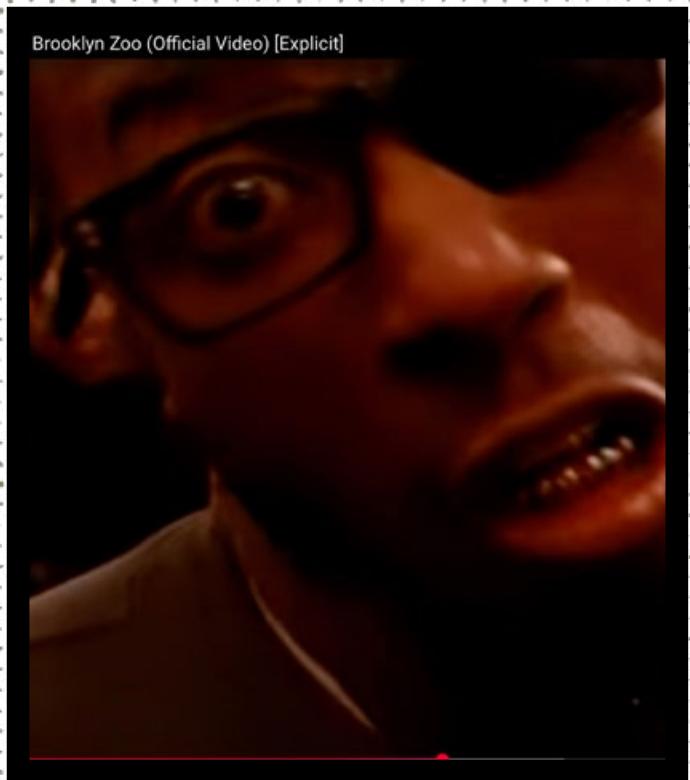
마치 맹수의 포효처럼, 거칠고 폭발적이며 세상
을 집어삼킬 듯한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는 전
혀 타협하지 않는 영혼이었으며, 음악은 그 모
든 것을 응축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정제되고 다듬어진 이미지와는 다른, 거침없이 날뛰는 랩은 본능적이며, 그 안에서 창조된 순간은 독창적이고 참신하다. 우탱 클랜(Wu-Tang Clan)에서 이미 고유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갈망하고 있었다. 90년대 동부를 상징하는 괴물, 올 더티 바스타드(Ol' Dirty Bastard)의 <Return to the 36 Chambers: The Dirty Version>는 거기서 비롯되었다.



힙합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가던 시기에, 그는 규칙을 거부하고 개성을 무기로 폭발적인 정체성을 창조해냈다. 물론 <Return to the 36 Chambers: The Dirty Version>의 프로덕션에서는 전통적인 힙합의 요소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색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며 당시 타 래퍼들과는 차별화를 선언했다. 기교나 세련됨보다는 내재된 솔직한 감정의 진폭과 원초적인 매력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르자(RZA)가 깔아놓은 무대는 이 앨범에서 올 더티 바스타드의 야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르자는 어떻게 하면 그의 랩 스타일을 완벽하게 돋보이게 할 수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탱 클랜의 정규 1집 <Enter The Wu-Tang (36 Chambers)>에서 주로 차용했던 로파이 한 샘플링 기법으로 재치 넘치지만, 동시에 거친 흐름을 만들어 냈다. 익살스러운 피아노 루프가 시작부터 반복되는 “Shimmy Shimmy Ya”와 신경질적인 불안감이 사운드로 표출되는 “Brooklyn Zoo”는 르자의 작법이 어떠한 형식에 얹매이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듯하다. 단순히 비트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 더티 바스타드의 랩과 감정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매혹적인 세계를 충실히 구현했다.



OL' DIRTY BASTARD

EXPOSED TO THE DOOMSDAY RAP TRAP VERSION

1. Intro
2. Shimmy Shimmy Ya
3. Baby C'mon
4. Brooklyn Zoo
5. Hippa to Da Hoppa
6. Raw Hide
7. Damage
8. Don't U Know
9. The Stomp
10. Goin' Down
11. Drunk Game (Sweet Sugar Pie)
12. Snakes
13. Brooklyn Zoo II (Tiger Crane)
14. Proteck Ya Neck II the Zoo
15. Cuttin' Headz

EXECUTIVE PRODUCERS: OLI GRANT, MITCHELL DIGGS, DENNIS COLES, DANTE ROSS

16. Dirty Dancin' (BONUS TRACK - CD ONLY)

17. Harlem World (BONUS TRACK - CD ONLY)

DO NOT BEND THIS CARD – NO DOBLE ESTA TARJETA



ELEKTRA ENTERTAINMENT GROUP A Division Of Warner Communications Inc. © A Time Warner Company 25 Rockefeller Plaza, New York, New York 10019-3455 North Maple Drive, Beverly Hills, California 90210-0701 ELEKTRA Entertainment Group, A Division Of Warner Communications Inc. For The United States And WEA International Inc. For The Worl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ll Rights Reserved. Unauthorized Copying, Taping,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Of This Recording Prohibited. Made in Germany by WARNER MUSIC MANUFACTURING GERMANY.

처음부터 끝까지 올 더티 바스타드의 끊임 없는 비틀거림으로 가득하다. 마치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를 토해내는 듯하다. 그가 말하는 방식, 때로는 엉뚱하고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묻어 나온다. 그는 랩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며, 규칙을 세우고 또 선언한다. 단순한 이야기나 일상적인 경험은 물론 이를 넘어서, 올 더티 바스타드의 내면의 혼란과 자유까지도 직설적으로 강력하게 전한다. 그 안에는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기괴한 욕망이 숨겨져 있다.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독창적인 영역이라 볼 수 있다.

LC 0193

7559-61659-2
EW 851



0 7559-61659-

<Return to the 36 Chambers: The Dirty Version>는 올 더티 바스타드가 가진 에너지와 자유로운 정신을 완벽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랩을 포함, 앨범에 담긴 대부분의 요소들은 기성의 예술을 벗어나는 해방을 찬양하며, 그의 존재 자체가 또 다른 예술이 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시대를 불문하고 전통과 관습을 답습하기보다 넘어서려는 열망은 이 렇게나 강력한 원동력이다.

EDITOR ryuzimoto



Return to the 36 Chambers: The Dirty Version - Ol' Dirty Bastard

1	Intro	10	Goin' Down
2	Shimmy Shimmy Ya	11	Drunk Game (Sweet Sugar Pie)
3	Baby C'mon	12	Snakes
4	Brooklyn Zoo	13	Brooklyn Zoo II (Tiger Crane)
5	Hippa to Da Hoppa	14	Proteck Ya Neck II the Zoo
6	Raw Hide	15	Cuttin' Headz
7	Damage	16	Dirty Dancin'
8	Don't U Know	17	Harlem World
9	The Stomp		

Released 1995. 3. 28.



F e a t u r e

제 2회 - 케에첼이



좋아하는
랜덤리뷰

- | | | |
|---|--|-------------------------------|
| 1 | <i>Dex Meets Dexter</i> | <i>Famous Dex</i> |
| 2 | <i>安河橋北(Ann Northbound)</i> | 宋冬野(쏭동예) |
| 3 | <i>NieR: Automata(Original Soundtrack)</i> | <i>Keiichi Okabe</i> |
| 4 | <i>Spaceship for bad dreams</i> | <i>Azikazin Magic World</i> |
| 5 | <i>イキルサイノウ(Ikiru Sainō)</i> | <i>The Back Horn</i> |
| 6 | <i>Tigerbeat Inc disc 1</i> | <i>Tigerbeat6</i> |
| 7 | <i>Wake Up... It's Tomorrow</i> | <i>Strawberry Alarm Clock</i> |
| 8 | <i>SGT-HI-C</i> | <i>HI-C</i> |



“KHL 매거진에 합류하고 나면,
매거진과 각종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디스코드 채널에 초대된다. 그리고
그 채널엔 ‘자유게시판’이 있다.
사담과 조롱이 난무하는 이 곳에선
종종 음악적 토론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 취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사람들의 이를 악문 토론을 볼 때
마다 한 생각이 내 머릿 속을 스쳐
지나간다. ‘이 사람들에게 서로의

음악을 추천해서 억지로 듣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그렇게 이번 매거진 글 소재이며
말을 꺼내 사회 실험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명분으로 시작했던 제
1회 ‘케에첼이 좋아하는 랜덤리뷰’,
에디터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은 걸
보니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그래서 2회차도 레스고 해보려 한다.



Dex Meets Dexter - Famous Dex

Released 2018. 4. 6.

재생버튼을 “딸깍-”하는 순간 들려오는 ‘요 피에르-, 유 워너 컴 아웃 히 얼-?’ 눈을 살며시 감고 나면 나는 점심시간에 유튜브로 각종 힙합 뮤직비디오를 함께 구경하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 페이머스 덱스, 그는 누구인가? 특유의 찰진 애드립과 발음을 구부리는 듯한 플로우로 사운드클라우드를 평정하고 메인스트림을 노렸던 사내 아니겠는가. 물론 지금은 깐부인 리치 더 키드보다 못한 상황이지만... 평소에도 1년에 두 세번 정도 듣는 이 앨범을 재생활 때면 퀼리티의 여부를 떠나서 웬지 모르게 노스탈직 해지면서 페이머스 덱스와 나의 처지를 동일시하게 된다. 아아- 그리워라- 그 시절이여....

EDITOR 산소 → EDITOR SONGCHICO



安河橋北(Ann Northbound) - 宋冬野(송동예)

Released 2013. 8. 26.

나는 어느 중국인의 사진첩을 보고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작품은 아닌 듯하다. ‘인생을 돌이켜 보는 작품에 가깝다’ 이것은 포크라서일까, 송동예라는 작가라서일까. 지니어스와 번역기를 십분 활용해 각각의 곡 제목부터 가사까지 낭독하듯 헛어본다. 떠나간 누군가, 떠나보내야 할 누군가, 지나간 일들, 지나 보내야 할 오늘의 시간들이 씹쓸하고 야속하게 다가온다. 천용성이 언뜻 떠오른다. 그의 노랫말을 밝지 않다. 타자를 비판하는 말 하나 없이 독할 때도 있다. 그래도 따뜻하다. 사람 사는 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음을 새삼스레 느낀다.

EDITOR denim → EDITOR 감상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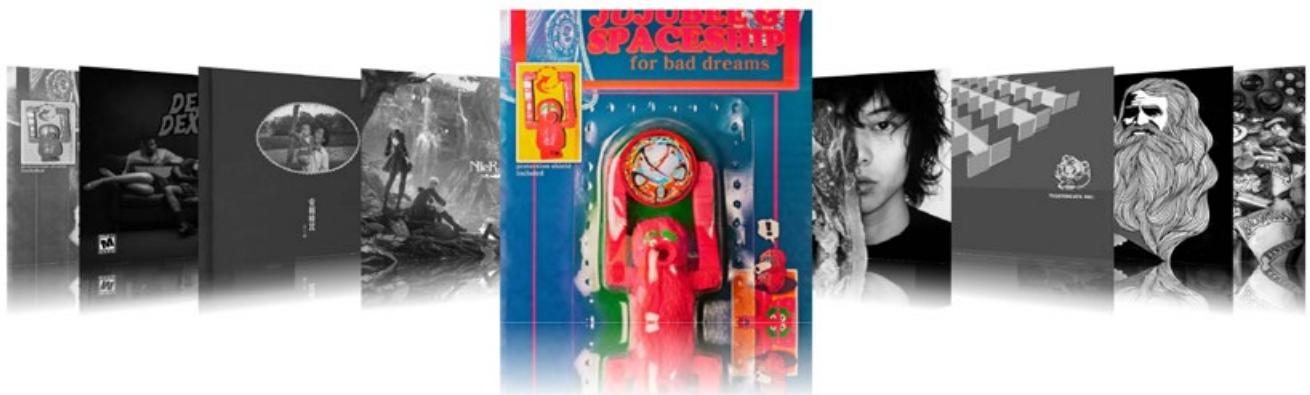


NieR: Automata (Original Soundtrack) - Keiichi Okabe

Released
2017. 3. 29.

비디오 게임 <니어: 오토마타>의 사운드트랙 앨범. 우선 게임의 스토리나 서사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기에 ChatGPT에게 게임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해달라고 했더니, ‘인류가 이미 멸종한 세계선에서의 윤리적 회색 지대와 감정의 모호함을 플레이어에게 체험하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자, 이제 그럼 사운드트랙을 경건한 자세로 재생해 보자. 어라,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 물론 3시간 13분을 전부 집중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우선 폭발적인 오케스트라풍의 편곡이 앨범의 주 무기가 된다는 점은 나름 마음에 들었다. 물론 이가 과잉되었다고 느껴지는 지점들도 많아서 귀가 피로하긴 했으나, 앰비언트스러운 사운드스케이프에서 오케스트라풍의 음악으로 전환되는 순간의 전율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앨범을 굳이 다시 찾아들을 것 같지는 않은 이유는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보컬이 심각하게 내 취향이 아니고, 앨범이 중반부 정도로 다다르면 수록곡들이 전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어찌저찌 다 듣긴 했는데, 솔직히 3시간이라는 시간을 이 앨범에 투자하는 건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40분 정도 길이로 나왔으면 대차게 좋아해줬을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3시간은 조금 힘들었어요.

EDITOR blvckmvttter → EDITOR 자카



Spaceship for bad dreams - Azikazin Magic World

Released
2020. 12. 20.

누가 알았으랴. 이 앨범이 국힙이었다는걸(...) 누가 알았으랴. 이토록 진지하고 무겁다는 것을(...) 커버만 보고 ‘아, 어디 변방(파푸아뉴기니 이런데) 국가의 익스페리멘탈, 혹은 사운드 콜라주 작품인가 보다!’ 하고 흥미롭게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순간, 타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집단이었답니다. 이들의 활동은 꽤 흥미로웠다. 시선을 잡아끄는 키치한 웹사이트 디자인부터 예사롭지 않더니, 게임/미술/만화책을 가리지 않고 다방면에서

이들의 캐릭터리티를 뽐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loading* 님께 추천받은 앨범 역시 발랄한 사운드, 혹은 다소 덜 정제된 귀여운 전자음악 깔(츠미코어ㅋㅋ)이겠거니 예상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나 혼자 있는 건 죽어도 싫은데 세상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래.’, ‘꼴 아박은 세월만큼 얻어낸게 있나.’ 컨셔스였다니... 한 방 맞은 기분이었다. 아티스트의, 인디 예술가들의 민낯이 담담하고 현실적으로 전개되는데, 본인 역시 얼마 전 졸업 후 취준생 모드 돌입 상태라 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거 같다. 그렇다고 마냥 딱딱한 건 아니었다. 최소한의 악기 구성으로 전개되는 신스와 약간의 익폐 형식을 띄기도 하는 트랙들의 전개는 정직하면서도 귀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따로 인스트루멘탈 트랙만 추출해서 발매해도 될 정도로, 트랙 하나하나마다 애살이 가득 넘친다. <*Spaceship for bad dreams*>은 자칭 (!) 한량들이 우리가 모르는 공간과 시간에서 조각해 낸 청춘의 순간이었다. 아지카진 매직 월드, 이들의 행보를 팔로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DITOR loading

→ EDITOR SRUKSAN



イキルサイノウ (Ikiru Sainō) - The Back Horn

Released
2003. 10. 22.

이민 생활을 오래 한 나는, 등교길 차 안에서는 아버지가 구운 대학가요제 CD를 듣다가 도 차에서 내리면 당시 유행하던 팝송으로 가득 찬 아이팟을 꺼내 들었다. 이런 경험의 영향일까? 동양의, 소위 말하는 ‘뽕끼’가 스민 서정적인 멜로디와 서양의 자유로운 사운드가 공존하는 J-ROCK은, 가사의 한 줄도 알아듣지 못해도 언제나 친숙하게 느껴졌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내외 팝 음악이 점차 전자음악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에도, 일본 가요계는 2000년대 초중반 유행하던 록 사운드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어왔다. 설렘, 열광, 애절함, 심지어 고독까지도 밴드 사운드만으로 표현해내는 유연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The Back Horn*의 “イキルサイノウ (Ikiru Sainō)”는 이 문화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듯, 약 한 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인간의 희로애락을 기타, 베이스, 드럼, 그리고 보컬만으로 담아낸다. (“花びら”에서의 하모니카는 특별 출연으로 치겠다.)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전혀 새로운 영화의 세계가 열린다”던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음악은 그마저도 필요 없다. 그저 흘러나오는 소리를 온전히 즐기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

EDITOR SRUKSAN

→ EDITOR denim

사다리타기 결과는 다음과 같아! ◉

- 치코 → 블매
- 산소 → 치코
- 데님 → 감상주의
- 블매 → 자카
- 로딩 → 스룩산
- 자카 → 산소
- 스룩산 → 데님
- 감상주의 → 로딩

각자 자기 자신과는 짹이 되지 않게 랜덤으로 매칭했어. 마음에 들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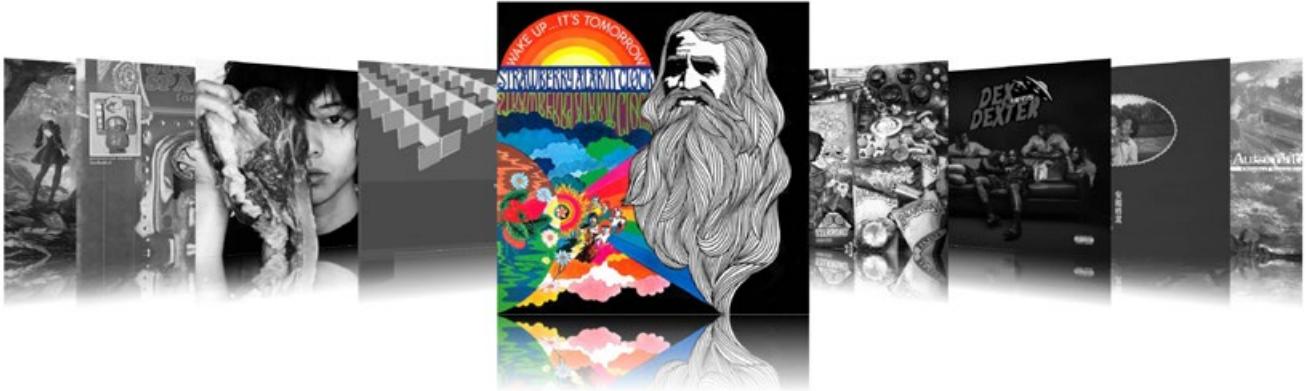
→ KHL



Tigerbeat Inc disc 1 - Tigerbeat6

Released 2001. 7. 30.

앨범 커버를 봤을 땐 귀여운 호랑이에 눈이 가고, 유튜브에 검색했을 땐 44트랙에 눈이 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틀었을 때, 머릿속은 ‘뭐임? 이거 뭐임?’으로 가득찼다. 기계음의 보컬로 시작하다 뜬금없이 전자음이 난입하는 “*I Am A Decent Man*”에서 말 그대로 ‘난 잡함’이 돌보이는 “*Kick SC*”로 시작되는 것 처럼, 여러 프로듀서진들이 만든 곡들로 구성된 <*Tigerbeat Inc disc 1*>는 난해한 구성과 군데군데 나오는 노이즈, 글리치 사운드 등을 통해 낯선 분위기를 주도한다. (심지어 마지막 곡은 6분짜리 백색소음 그 자체이다.) 분야는 다르지만, *LSD: Dream Emulator*라는 게임이 자연스레 연상 될 정도이다. 그저 비형식적으로 나마 진행되는 루프가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게 맞다는걸 계속 확인시켜줄 뿐. 그래도 취향에 맞는 음악도 중간중간 발견했다. 침잠된 사운드로 분위기를 휘잡는 “*Ginotopia*”, 동양 현악기의 속주와 함께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Exoticmanwaling(edit)*”이 그 예시며, 특히 *Madvillain*의 “*Accordion*”의 샘플로 유명한 “*Exp.*”의 등장은 그 자체로 반갑게 다가왔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렵다는 인상이 강하며, 감상이 꽤나 힘든 작품이었다. 찾아보니 이런 음악을 *IDM*라고 하는데, 익숙해지는데 한참 걸리듯 하다.



Wake Up... It's Tomorrow - Strawberry Alarm Clock

*Released
1968. 6.*

분명 쉽다. 진짜 분명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세뇌 당하는 기분이다. 커버 속 아저씨의 눈빛이 무섭다.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몸이 힘 이 짹 빠지는 보컬과 앨범 커버 만큼이나 당황스러운 곡 제목과 가사들. 어떻게 제목 이 타악기의 악몽.. 마녀의 저주.. 아무리 해당 장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문 외한이라지만 그런 나에게도 크게 다가온 요소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모든 곡의 인 트로들. 인트로가 진짜 좋다. 분명 신나는 곡조인데 기분이 우울해지는 건 왜인지 모르겠지만 곡의 시작을 알리는 통통 튀는 리프들과 드럼이 귀를 분명하게 사로잡는다. 취향은 아니지만 커버와 달리 사운드는 무난하니 좋아서 신기했던 앨범.

[EDITOR 자카](#) → [EDITOR 산소](#)



SGT-HI-C - HI-C

*Released
2024. 10. 31.*

본래 이 코너의 목적은 서로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리저리 흘어져있는 취향의 에 디터들에게 강제로 먹여버리는 것. 그러나 아뿔싸, 처음으로 먹여짐 당하기 위해 참여한 피쳐에, 하필 두 회차 모두 합하여 유일하게 들어본 앨범이 내 앞으로 배달될지 누가 알았을까... 남부의 더티한 트랩과 절크, 레이지, 클라우드 랩에 괴상하고 요상한 효과음들을 섞어놓은 <SGT-HI-C>는 그 앨범 커버만큼이나 난잡하다. 고 급 시계와 비비안 웨스트우드 체인을 찬 채로 대마와 환각 버섯과 하드 드력을 하며 캐로로와 콘솔 게임을 즐긴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들을 때마다 무슨 음악인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33분간 부족한 도파민 하나는 확실하게 채울 수 있다.

[EDITOR SONGCHICO](#) → [EDITOR blvckmvttter](#)



F e a t u r e

일찍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며

Big L

Mac Miller

Chynna

XXXTENTACION

Eazy-E

Pop Smoke

Lil Peep

Big L

골든 에라로 통칭되는 힙합의 황금기가 현재에 와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 즉 일종의 '정통'으로 기억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당시는 기존 힙합의 공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시도들이 행해졌던 때였다. 무엇보다 랩의 진화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MC들은 라임의 빈도를 높이고 더 창의적인 가사를 쓰기 위해 끊임없이 펜촉을 굴렸고, 고작 몇 년 만에 90년대의 랩은 80년대의 랩과 비교도 할 수 없이 고차원적으로 승화되었다. 그리고 장르 최고의 인재들이 속속히 그들의 존재를 선포하던 가운데 과연 손꼽힐 만한 천재 한 명이 있었다. 빅 엘(Big L), 할렘 출신의 프리스타일 래퍼. Big Daddy Kane의 적자이자 뉴욕의 건조한 언더그라운드 블루스를 상징하는 크루였던 D.I.T.C의 우등생. 그의 랩을 묘사하자면, '완벽' 만큼이나 직설적이고 명료한 표현이 또 없을 것이다. 그의 랩은 과장 없이 정말로 완벽했기 때문이다. 견고한 하이톤의 발성과 단 한 숨도 허투루 새지 않는 호흡, 그로부터 유래되는 예리한 전달법과 오차 범위를 정확히 측정하며 고도의 복잡성을 구사하는 플로우까지 — 엘은 그의 목소리를 처음 녹음할 때부터 이미 청각적으로 완성된



래퍼였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동시에 힙합 역사상 최고의 작가 중 하나라는 것이다. 고차원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언어유희를 선보이는 희귀한 재능의 MC들은 분명 존재하나, 빅 엘만큼이나 간결하면서도 재치있는 편치라인을 작성하진 못했다. 심지어 그는 “I'm so ahead of my time, my parents haven't met yet” 같은 라인을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는 더 써내릴 수 있었다. 어쩌면 반백 년을 통틀어 제일로 평가받을 만한 그의 창의성은 애석하게도 끝까지 빛을 보지 못했다. 걸출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본질적으로 우범지대에 놓인 여느 흑인 청년들과 다를 바 없었던 24세의 젊은이 Lamont Coleman는 오해로 인한 충격으로 그렇게 한 순간에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위대한 데뷔 랩 레코드 〈Lifestylez Ov Da Poor & Dangerous〉가 발매 30주년을 맞이하는 금세, 그의 재능이 그리워만 진다. 더군다나, 그가 분명 계획이 있던 사람이었음을 감안한다면.

EDITOR 온암



Mac Miller

그렇다면, Big L의 기술적인 라임 배치와 편치라인에서 영향을 받은 — 2010년대 이후의 힙합씬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여기 있다. 맥 밀러(Mac Miller), 유연

한 플로우와 재치와 깊이를 동시에 머금고 있는 리릭시즘을 갖춘 래퍼이자 — 자신만의 독보적인 감성을 구축하며 후대 많은 래퍼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인물. 믹스테입 〈K.I.D.S.〉에서 처음으로 두각을 드러낸 그는 처음부터 완성형에 가까운 프로듀싱 역량과 MC로서의 자질을 당당하게 드러냈으며, 이후엔 〈Watching Movies with the Sound Off〉, 〈Faces〉와 같은 작품들에선 자유로이 방황하는 젊은 예술가만의 세계를 밀도 있게 그려내기까지 하였다. 또한 맥 밀러가 현대까지도 많은 이들에 의해 추모되고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실험을 요구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구축해낸 몇 안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이키델릭한 어두운 사운드를 도입해 본인의 복잡한 내면을 그려내기도 하였고, 〈The Divine Feminine〉에서는 사랑과 관계에 관한 탐구를 부드러운 재즈와 소울 기반의 사운드를 바탕으로 풀어내었으며, 생애 마지막 정규작이 된 〈Swimming〉, 그리고 사후 첫 발매작이 된 〈Circles〉는 힙합 장르 저 너머까지의 음악적



지향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결과물이었다. 그러한 일련의 흐름은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음악을 통해 끊임없이 기록하고 발전시켜나간 과정이었다. 맥 밀러가 동시대 힙합 아티스트들과 차별화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탐구하려 했으며, 결국 그만의 독창적인 서사를 탄생시켜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EDITOR 자카



Chynna

메종 키츠네에서 기획한 컴필레이션 〈Kitsune Afterwork, Vol.1〉에서 그녀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뭇도 모르고 엘레강스한 프렌치 하우스 음악만을 취급하는 줄 알았던 브랜드에게 힙합/알앤비가 전격 배치된 앨범은 그런 음악밖에 모르던 일개



고등학생에게 마냥 반가웠다. 그중에서도 둑둥거리는 808 베이스와 미니멀한 하이햇으로 하여금 전형적인 트랩이 키츠네에 어울릴 수 있다는 사실은 반가움을 넘어서 새로운 충격이었다. Chynna의 “Paf”가 바로 그 순간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정규 하나 내놓지 못한 그녀였지만, 스포트라이트만 제대로 받는다면 메인스트림에서 꽤나 이름을 날렸을 거라는 기분 좋은 상상도 했었다. <music 2 die 2>를 들으며 실제로 가능성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즐겨들던 뮤지션은 그녀 외에도 너무 나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씩 나도 모르게 잊어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름 아닌 어느 국내 뉴스로 그녀의 비보를 들었다. 2020년 이면, Lil Peep, Mac Miller의 연이은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동료 래퍼들 사이에서도 약물 복용 자체를 외치던 시기를 지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 1년 뒤에야 사후 앨범으로서 정규가 발매 됐다. 지금도 허구한 날 약물로 인해 어린 인재들이 생사를 오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 중에는 정규도 제때 발매해 보지 못한 무명들도 태반일 테다.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나야 당연히 약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들이 실제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알 길이 없으나, 팬으로서라도 경각심을 놓지 않기 위해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녀의 죽음을 잊지 않으려 한다. 주어진 제 삶에 따라 몰락하는 것이 아닌 성취를 이뤄내야 마땅할 천재 예비 스타들이 너무 많다.



EDITOR 감상주의

때는 라디오에서 아델과 저
스틴 비버가 번갈아가며 흘러나

오던 2016년 초. 대학교 기숙사 복도에서는 드레 이크와 퓨처의 “Jumpman,” 그리고 상승 곡선 을 타기 시작한 위켄드의 “Can’t Feel My Face” 가 불금을 즐기던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마치 예거 와 레드불처럼 뒤섞이고 있었다. 이러한 악자지 껄함을 거부하던 몇몇의 컴퓨터에서는 듣는 것으로도 죄가 될 것만 같은 발칙한 음악이 흘러나 오고 있었다. 믹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조악한 음 질, 그리고 ‘내 자*를 제어할 수 없어’ 같은 파격적인 가사가 뒤섞인 곡의 이름은 “Look At Me!”였다. 제목 그대로 이 곡은 순식간에 힙합 씬의 이목 을 끌었고, 모두가 발음조차 불확실한 그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XXXTentacion’. 그림자 가 짙게 드리운 두 눈, 금색과 검은색으로 반반 염 색한 드레드 머리는 그의 파격적인 음악과 더불어 강렬한 캐릭터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처럼, 대중의 반응도 ‘신선하다’와 ‘저게 뭐 냐’로 반반 갈렸다. 나는 후자였다. 그의 행보와 스타일은 ‘정통 힙합’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었고, 덩달아 주목받게 된 사운드클라우드 래퍼들은 몇십 년의 문화를 부수러 온 황건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 건 아니다. 텐타시온의 문제작 <17> 이 발매된 2017년 늦여름, 힙합 씬은 마치 2000 년대 초 록 씬처럼 우울감과 자기혐오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본인의 섹스 파트너가 자살하고, 우리 모두 악몽 속에서는 죽음을 택하며, 자신 역시

XXXTENTACION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금기시된 말들을 가사로 뱉어내는 그의 솔직함에 모두가 숙연해졌고, 그를 혐오하던 나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누구는 이를 '중2병 같다'고 치부했고, 누구는 그의 전과를 들먹이며 위선자라 불렀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텐타시온은 어느새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들을 이끄는 모세가 되었고, 힙합 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 나온 <?>는 전작과 같은 맥락의 가사에 한층 풍부해진 사운드를 더해 더 많은 추종자를 불러모았고, 그의 시대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텐타시온은 이 앨범이 발매된 지 채 한 계절도 지나지 않아 괴한의 총에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20살. 언제나 그렇듯, 그의 유족과 음반사는 그의 시체에 빨대를 꽂아 수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했고, 그의 하드를 뒤져 두 장 분량의 유작을 내놓았다. 그의 공연에서 모쉬핏을 열던 수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록스타, 새로운 파티 음악을 찾아 흩어졌고, 집에서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던 래퍼 지망생들 역시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한 시대를 풍미할 것만 같았던 슈퍼스타의 유산은 어디로 갔을까? 신기루처럼 떠올랐다 사라진 텐타시온의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 죽음을 노래했지만 죽을 준비는 하지 않았던 그는, 유산 따위를 생각할 여유가 있었을까? 비 오는 날 열어 놓고 나온 창문처럼 문득 떠오르는 이런 질문에, 난 그저 그의 음악이나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한다.



힙합 역사상 가장 마초적이고 사내다웠던 남자, 모두가 경외해 마지않는 공포의 대상, 갱스터 랩의 대부. 이 글에서 구태여 그의 악행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으려 한다. N.W.A와 Ruthless Record는 결국 그가 맨땅에서부터 일궈낸 결과물이며, 1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쌓아 올렸던 업적은 분명 과를 모두 덮을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아니, 범위를 좀 더 좁혀도 될 것 같다. 〈Straight Outta Compton〉 - 이 위대한 앨범 단 한 장 만으로 그는 두꺼운 힙합 역사 책의 초반 챕터 하나를 할당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시대 대중에게 어필했던 백인 청년들 Beastie Boys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터뜨려낸 에너지는 곧 흑인 사회를 넘어 미국 전체에 더없이 효과적인 충격 요법으로 기능했다. “Fuck Tha Police”의 압도적 아우라를 제하고도 음반은 이지-이(Eazy-E)의 숨결이 잔뜩 불어 넣어져 있다. 이미 충분히 과격한 다른 멤버와도 비교 불가하게 폭력적인 가사는 곧 후대 갱스터 랩의 기틀이 되었고, 특유의 쏘는 듯한 톤은 모든 곡의 하이라이트를 차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비록 그 재능을 더욱 오래 펼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락스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방탕한 생활 끝에 찍힌 마침표는 죽음마저도 참으로 그답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 어느덧 30주기를 맞는 올해 3월 26일, 컴튼의 적자가 “Eazy-Duz-It”을 샘플링한 배틀 랩을 단초로 웨스트코스트의 부활을 선포한 광경, 그리고 자신이 뿌린 씨앗이 환경 변화 속에서도 꾳꿋이 살아남아 자생하는 모습을 그 도 갱스터들의 천국에서 보고 있을까.

Eazy-E





불과 1년 전 음악을 시작한 19세 래퍼가 씬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한 장르를 유행시킬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 꿈결 같은 이야 기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다. 팝 스모크(Pop Smoke)의 두 해를 지켜본 힙합 팬을 제외하고는. 2019년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본래 시카고의 자식이었던 드릴을 끝끝내 포섭하여 그 이름 앞에 'NY' 혹은 '브루클린'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만들었다. 오래간 불법이라는 거목이 뿌리를 내린 땅에 모종 하나가 빠른 속도로 자라난 것이다. 첫 믹스테잎 <Meet The Woo>로 빠르게 출발한 후 다음 해 초반부터 <Meet The Woo 2>로 속도를 올리자 온 리스너는 앞으로 그의 세상이 열리리라 짐작했다. 2월 19일 충격적인 비보가 들려오기 전까지 말이다. 극도의 폭력성이라는 장르의 특징과는 별개로 착실한 삶을 살았던 그는 그렇게 강도의 총탄에 세상을 등져 버렸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에 남은 이들이 답한 방법은 사뭇 음악적이었다. 첫 사후 앨범 <Shoot For The Stars, Aim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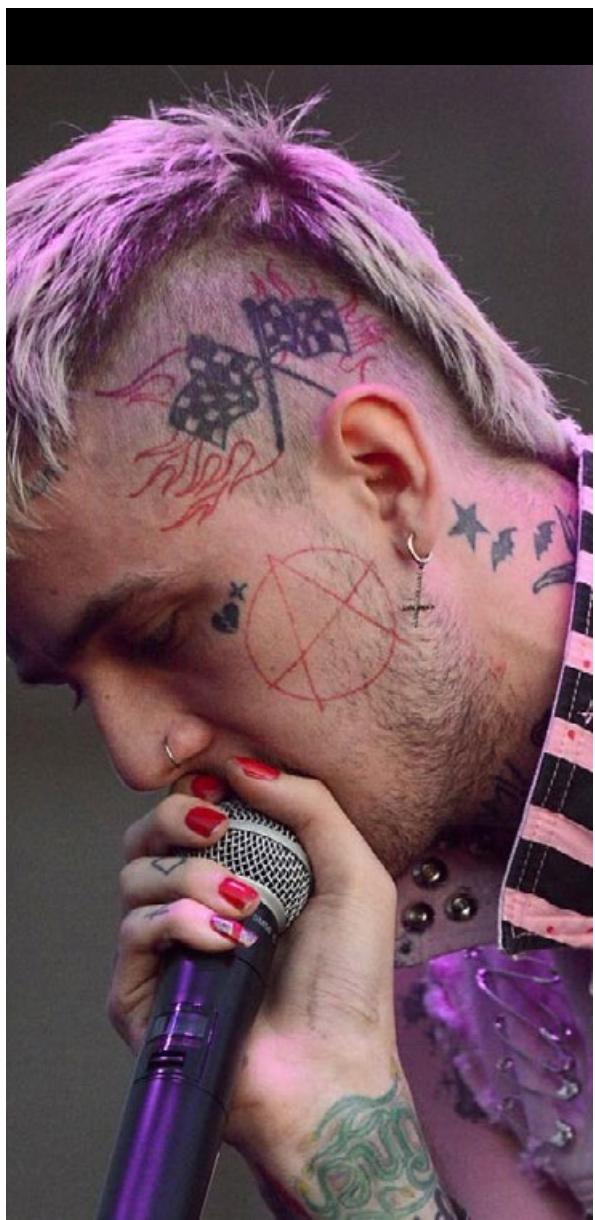


The Moon>에 쏟아진 뜨거운 반응은 2020년 빌보드 싱글 차트의 모든 곳에서 그의 이름을 볼 수 있게끔 했다. 비록 그만한 인물이 없었던 탓에 직접 선두에 섰던 장르는 짧은 전성기를 마감하고 스러졌지만, 현재 브롱스와 샘플 그리고 섹시까지 드릴이라는 대전제를 공유하며 뻗어져 나가는 잔가지는 그가 없었더라면 훨씬 미약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약 팝 스모크가 그토록 어린 나이에 떠나지 않았더라면 씬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을까? 결론은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 더 다채롭고 화려했을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할 테다.

Pop
Smoke

EDITOR moogsick

Lil Peep



사운드 클라우드(Sound Cloud)에 음악을 올리면 집세를 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L.A.의 빈민가, 스키드 로우로 떠난 한 청년은 고작 200달러짜리 마이크와 개러지 밴드(Garage Band)로 자신의 꿈을 이뤄버리고 말았다. 암담한 처지와 불안한 미래, 일찍이 이혼한 부모님 때문에 겪어야 했던 불우한 어린 시절, 자신을 떠나버린 여자친구 등 많은 절망들이 그의 곁에 늘 함께 했고, 그의 음악은 그런 자신의 우울함과 자살 충동을 가감없이 담아내며 이모-랩(emo-rap)이라는 이름으로 한 시대를 대표했다. 행복도 잠시, 우울함을 노래하던 그는 자신의 첫 월드투어 중 운명을 달리했다. 사인은 그간 정신질환 때문에 다량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약물이 치사량에 이르렀다는 것. 여기까지가 고작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LIL PEEP; PART ONE〉, 〈Hellboy〉, 〈crybaby〉, 〈Come Over When You're Sober〉 시리즈 등 사운드 클라우드 시대를 대표하는 숱한 작품을 남긴 릴 퍼프(LIL PEEP)의 전설적인 비극이다.

릴 퍼프를 emo스타로 만든 동시에 일생을 괴롭히던 정신 질환이 죽음을 불러왔다며 볼 수 있지만 유가족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유가족측은 사망에 대한 책임이 생전 그를 관리하던 레이블에 있으며 캐릭터를 더욱 부각시킨다는 점과 릴 퍼프가 투어 활동을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약물



사용을 적극 권장했고 사망 당시에도 아무런 구조 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릴 핍은 실제로 생전 인터뷰에서 '랩스타가 되는 것은 프로레슬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건 누군가를 연기해야 하거든요'라 말하기도 했다.)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재판까지 열렸고 '레이블이 릴 핍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는 발언이 일부 인용되어 유가족이 릴 핍의 음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으로 합의했다. 레이블에 의해 방향성이 바뀌게 된 릴 핍의 앨범에 'OG Version'이란 태그가 붙고,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릴 핍의 곡들이 계속해서 발매되는 일에는 이런 비하인드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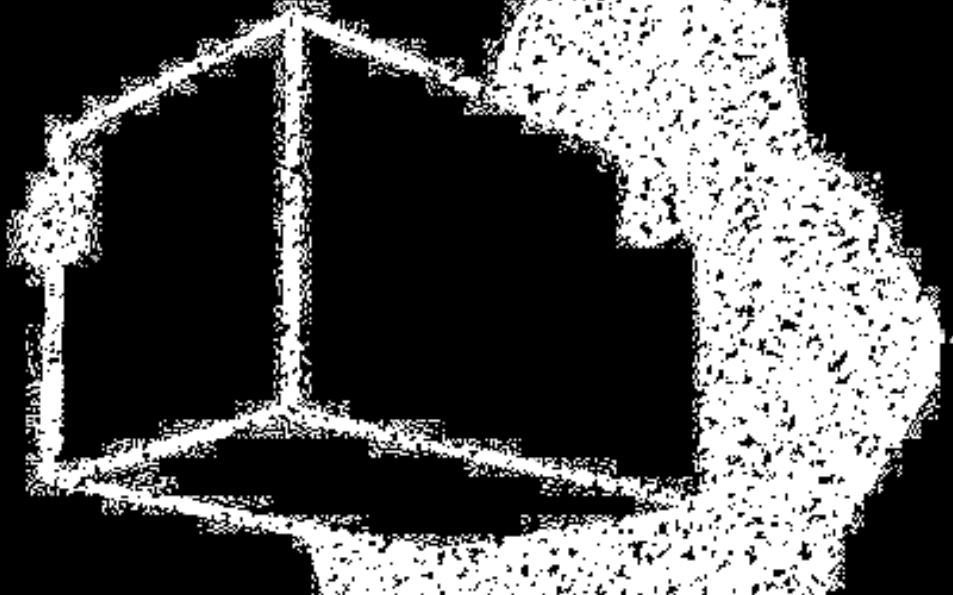
자신의 아픔을 승화한 음악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된 한 청년의 아픔을 누군가는 '캐릭터'로 이용했고, 그가 이 명성을 채 누리기도 전에 그들에 의해 죽음에까지 내몰렸다는 것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셈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아티스트들이 '산업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지켜보았고, 이 때문에 릴 핍의 사례가 다시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그게 참 안타깝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아티스트들을 떠나보내야 이런 비극을 멈출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언제쯤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내릴 수 있을까?



5

Editor's Pick

P!



[Fetch](#)

[Melt-Banana](#)

EDITOR 김상주의



[Medúlla](#)

[Bjork](#)

EDITOR 김상주의



[Hymns in Dissonance](#)

[Whitechapel](#)

EDITOR 자카



[Luminescent Creatures](#)

[Ichiko Aoba](#)

EDITOR 자카



[MAYHEM](#)

[Lady Gaga](#)

EDITOR SRUKSAN



[Something Beautiful](#)

[Miley Cyrus](#)

EDITOR 자카



Editor's PICK



Fetch - Melt-Banana

1. Candy Gun
2. The Hive
3. Vertigo Game
4. Lefty Dog (Run, Caper, Run)
5. Infection Defective
6. My Missing Link
7. Zero+
8. Schemes of the Tails
9. Lie Lied Lies
10. Red Data, Red Stage
11. Then Red Eyed
12. Zero

Released 2013. 10. 1.



물고기처럼 보이는, 그러나 정체불명의 령들 사이의 쿠로네코. 다이진의 쌍둥이라도 되는 듯, 잔뜩 음침하고 불길하며 불가사의한 녀석은 분명 악동일 테지만... 젠장, 귀엽다는 인상을 뿐리칠 수 없다. 이것이 <Fetch>의 정체이자 노이즈코어 그룹 멜트-바나나(Melt-Banana)의 중독성이다. 정신이 나갈 듯한 광란은 분명 골때리는 계략이지만, 밟기는커녕 한없이 앙증맞고 사랑스럽다. 야스코(Yasuko Onuki)의 보컬은 작지만 거침없는 녀석의 정확한 의성이다. 이치로(Ichiro Agata)의 신들린 기타 폭주는 녀석에게 끊임없이 뿐어져 나오는 령들이 겹겹이 벽(Wall of Sound)을 쌓도록 한다. 만약 그들이 그라인드코어/

파워바이올런스의 전형을 그저 답습한 밴드였다면 속도감은 곧 참혹한 폭력일 테지만, 대신에 이들의 것은 의기양양한 박력이다. 이를테면 소닉처럼(이들은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영미권 힙스터들을 사로잡은 마력은 여기에 있다. 특히 온갖 바이럴과 믿들을 맛보고 일본 서브컬처에 눈을 뜨기 시작한 이라면, 세세한 레퍼런스를 모르더라도 감성만으로 최고의 취향 저격이 될 것임을 자신한다. 오랜 세월 천방지축의 말썽꾸러기 둘이 꾸려 온 새로운 노이즈 뮤직에 저항하지 마라. 사탕 꾸러미를 장전한 총격("Candy Gun")이라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발칙하고도 도발적인 난사란 말인가.

EDITOR 김성주의



Medúlla - Bjork

1. Pleasure Is All Mine
2. Show Me Forgiveness
3. Where Is the Line?
4. Vökuró
5. Öll Birtan
6. Who Is It (Carry My Joy On the Left, Carry My Pain On the Right)
7. Submarine
8. Desired Constellation
9. Oceania
10. Sonnets / Unrealities XI
11. Ancestors
12. Mouth's Cradle
13. Miðvíkudags
14. Triumph of a Heart

Released 2004. 8. 31.

20년이 갓 넘은 세월 동안, 단연컨대 예술로서 아카펠라를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린 작품은 여전히 비요크(Bjork)의 <Medúlla>다. 명목상 솔로 앨범이지만 결코 솔로 앨범이 아니다. 그녀는 악단의 지휘자가 된다. 함께 아트 팝 버전의 유사-도그마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기술은 거의 눈치를 못 챈 만큼만 이용해 오로지 인간들의 실험을 보조하는 용도다. 순수하고 클래식한 합창(choral)이다. 클래식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미학의 실현을 위해서만 움직이던 플럭서스나 뮤직 콘크리트 예술가들과 비슷하다. 어쩌면 대중음악으로서의 경계를 아득히 벗어난 시도일지도 모르겠다. 당시 평단조차 신선함에 의한 매력과는 별개로, 이를 어떻게 대중예술로서 이해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눈치다. 이미

<Post>, <Homogenic>, <Vespertine> 등 극단 까지 밀어붙인 아방가르드에 나름 익숙해졌을 법도 하건만. 그런 의미에서 대중을 위한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난해함이 먼저 와닿는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 간혹 본작을 오로지 자신의 세계관에만 몰두한 자기중심적 작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그녀의 목적에 개인만을 위한 것은 없다. 작품 속 모든 참여자들에 의한 아름다운 화합이 일러주고 있다. 보편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아테네 올림픽이야말로 이를 가장 잘 이해했다. 그녀는 직접 이렇게 성명했다. "인간 정신주의(human spiritualism)을 위한 것"

EDITOR 김성주의



Hymns in Dissonance - Whitechap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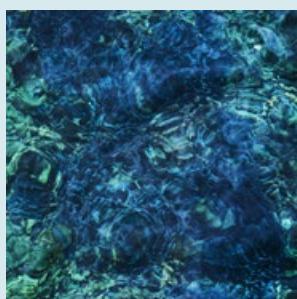
1. Prisoner 666
2. Hymns in Dissonance
3. Diabolic Slumber
4. A Visceral Retch
5. Ex Infernis
6. Hate Cult Ritual
7. The Abysmal Gospel
8. Bedlam
9. Mammoth God
10. Nothing Is Coming for Any of Us

Released 2025. 3. 7.

fallingwithscissors, Judas Priest, Όωλίτης [Hoplites]를 비롯한 다양한 메탈 아티스트들이 활약해 주던 2024년의 상반기 메탈씬과 달리, 2025년의 메탈 씬은 굉장히 잠잠했다. 그렇게 2월마저 메탈 아티스트들의 주목할 만한 활약 없이 지나가던 중, 녹스빌 출신의 데스코어 밴드 화이트채플(Whitechapel)이 틈새 공략을 완벽하게 성공해 내고야 만다. 이전 작품들의 무자비한 공격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본작 〈Hymns in Dissonance〉. 첫 곡 “Prisoner 666”的 ‘I bear the number 666’라는 외침과 함께 육중한 드럼 사운드가 드랍 될 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컬리스트 Phil Bozeman의 광기 어린 보컬은 본작에서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곁에 압도적인 기타 리프와 무겁게 내리꽂히는 브레이크다운을 내

세워 긴장감과 격렬함을 동시에 조성하는 것이다. “A Visceral Retch”와 “The Abysmal Gospel”에서는 격렬한 블라스틱비트와 강렬한 기타 리프가 몰아치며, “Mammoth God”과 같은 트랙들에서는 멜로디한 요소를 가미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떤 음악에서도, 실험과 변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 정체는 곧 퇴보를 의미하곤 한다.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본래의 음악적 뿌리로 돌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다지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기에 화이트채플의 〈Hymns in Dissonance〉는 이들의 커리어를 조망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하게 될 작품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들의 컴백을 반기며 신나게 머리를 흔들면 될 뿐이다.

EDITOR
주카



Luminescent Creatures - Ichiko Aoba

1. COLORATURA
2. 24° 3' 26.98" N, 123° 47' 7.5" E
3. mazamun
4. tower
5. aurora
6. FLAG
7. Cochlea
8. Luciferine
9. pirsomnia
10. SONAR
11. 惑星の泪



Editor's PICK

Released 2025. 2. 28.

이치코 아오바(Ichiko Aoba)의 음악은 자연의 어휘로 기술될 수 있다. 바람에 흘날리는 풀밭, 해저와 지상 위를 오가는 미지의 생명체,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 이전까지 그녀의 음악이 주로 어쿠스틱 기타와 목소리에 의존한 —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 2020년의 〈Windswept Adan〉은 그렇지 않았다. 자연을 향한 그녀의 탐구가 확장된 편곡과 정교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함께 실체를 가진 공간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5년만의 새로운 작품, 〈Luminescent Creatures〉에서도 이어지며, 보다 풍부해진 사운드 디자인과 더욱더 몽환적으로 구축된 서사가 강조된다. 단적으로, 오프너 “COLOARTURA”의 겹겹이 쌓이는 현악이나 “Luciferine” / “SONAR”

등의 트랙들에서 드러나는 부유하는 멜로디 위의 빛과 파동, 그리고 “mazamun”에서 포착되는 물방울과 벌레, 작은 존재들의 섬세한 움직임이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것이다. 〈Luminescent Creatures〉는 단순한 몽환적 사운드의 나열이 아닌, 정교한 구성과 섬세한 감정선을 그려내 보다 생생한 공간을 창조하는 데 집중한 작품이다. 이치코 아오바의 음악은 우리를 낯선 풍경 속으로 데려가지만, 그곳은 차갑거나 이질적인 세계가 아닌 — 따뜻한 빛과 미세한 떨림이 감도는, 기억과 꿈이 맞닿는 장소다. 그녀는 이번에도 그 공간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내며, 자연과 인간, 시간과 감각이 교차하는 순간을 표현해낸 것이다.

EDITOR
주카



MAYHEM - Lady Ga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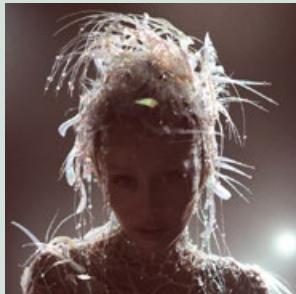
1. Disease
2. Abracadabra
3. Garden Of Eden
4. Perfect Celebrity
5. Vanish Into You
6. Killah (feat. Gesaffelstein)
7. Zombieboy
8. LoveDrug
9. How Bad Do U Want Me
10. Don't Call Tonight
11. Shadow Of A Man
12. The Beast
13. Blade Of Grass
14. Die With a Smile (with Bruno Mars)

때로는 마더 몬스터(Mother Monster)로, 짙은 화장을 걷어낸 싱어송라이터로, 할리퀸으로 - 성공적으로 여러 페르소나를 소화해낸 레이디 가가(Lady Gaga)는 이를 하나로 규합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는 〈MAYHEM〉이라는 결과물로 도출되었다. 이 어려운 통합은 꽤나 안정적으로 이뤄졌고, 군더더기라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슬슬 힘에 부쳐보인다는 느낌은 괜한 기시감일까? 레이디 가가는 이 통합 과정을 위해 - 과거의 자신을 연기하는 데에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연기 과정은 단 하나의 틈도 허락해서는 안된다. "Disease", "Abracadabra"와 같은 트랙에서는 이 흉내가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수준이지만, 어느 지점부터 〈MAYHEM〉은 뜬금없이

Released 2025. 3. 7.

80년대 신스팝으로 전환되며 고개를 겨우뚱하게 만든다. 여기서부터 본작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안정적으로 흘러가며 본연의 도발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How Bad Do U Want Me", "Shadow Of A Man"와 같은 몇몇 트랙이 성공적인 재가공을 거쳤음에도 퍼석퍼석한 탓은 - '그래서 〈MAYHEM〉이 대체 Joanne의 무엇을 표현해내고 싶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무실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베테랑 아티스트의 무난한 제자리돌기. 우리는 그녀의 기념비적인 도약을 기대하기보다, 그저 즐겁게 감상하면 될 따름이다.

EDITOR SRUKSAN



Something Beautiful - Miley Cyrus

1. Something Beautiful

Released 2025. 3. 31.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 나와버렸다. 얼마 전, "Flowers"를 통해 새로운 고점을 간신히 맞이한 마일리 사이러스(Miley Cyrus). 약 2년간의 공백 끝에 그녀가 새로운 정규 앨범 〈Something Beautiful〉을 예고했다. 그런데, 앨범의 선공개 싱글 "Something Beautiful"은 어딘가 굉장히 이상하다. 빅 밴드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본 트랙은 그녀가 지금 까지 발표해온 그 어떤 트랙들보다 임팩트 있고 충격적이다. 물론 그녀가 이런 인디 장르들에 관심을 가져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Plastic Hearts〉에서 그녀는 파워 팝과 글램 록이라는 장르의 음악을 완성도 있게 구사해 내었으며, 그녀 커리어에서 가장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Miley Cyrus & Her Dead Petz〉에서

마저도(...) 그녀의 인디 음악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트랙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결과물보다 그 완성도가 출중하고, 동시에 그 비전이 가장 자연스럽게 구현되어 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사이키델릭한 보컬로 포문을 열어젖히다, 약 2초간의 정적이 지난 후 강렬한 아방가르드 사운드가 폭발하듯 터져 나올 때의 전율은 말로 쉽사리 형용될 수 없다. 나아가 곡이 후반부에 치달은 뒤에 사운드를 가득 메우는 그녀의 샤우팅은 곡을 듣는 청자의 그 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오는 5월 30일 발매될 〈Something Beautiful〉이 어떤 모양새로 발매될지는 아직도 잘 알 수 없지만, 훗날 우리가 그녀의 커리어를 다시금 돌아보게 될 때 — 본작이 그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EDITOR 자카

New

#mia - skaiwater
EDITOR. 자카

PAPOTA - CA7RIEL & Paco Amoroso
EDITOR. 자카

Dirty Talk - Michi
EDITOR. 감상주의

OI! - YT
EDITOR. SONGCHICO

They Left Me With the Sword &
They Left Me With a Gun - Paris Texas
EDITOR. blvckmvttter

Full

MUSIC - Playboi Carti
EDITOR. blvckmvttter

October Country - Ghost Mountain
EDITOR. SONGCHICO

From The Private Collection of
Saba and No ID - Saba x No ID
EDITOR. moogsick

Club Shy Room 2 - ShygirL
EDITOR. 감상주의

Dead Channel Sky - clipping.
EDITOR. SRUKSAN

Classics

Return to the 36 Chambers:
The Dirty Version - Ol' Dirty Bastard
EDITOR. ryuzimoto



N
O
W 67 P

Feature

1. 제 2회 '케이첼이 좋아하는 랜덤리뷰'

Dex Meets Dexter - Famous Dex
EDITOR. 산소 → SONGCHICO

安河橋北 (Ann Northbound) - 宋冬野(송동예)
EDITOR. denim → 감상주의

NieR: Automata (Original Soundtrack) - Keiichi Okabe
EDITOR. blvckmvttter → 자카

Spaceship for bad dreams - Azikazin Magic World
EDITOR. loding → SRUKSAN

イキルサイノウ (Ikiru Sainō) - The Back Horn
EDITOR. SRUKSAN → denim

Tigerbeat Inc disc 1 - Tigerbeat6
EDITOR. 감상주의 → loding

Wake Up...It's Tomorrow - Strawberry Alarm Clock
EDITOR. 자카 → 산소

SGT-HI-C - HI-C
EDITOR. SONGCHICO → blvckmvttter

Editor's Pick

Fetch - Melt-Banana
EDITOR 감상주의

Medúlla - Bjork
EDITOR 감상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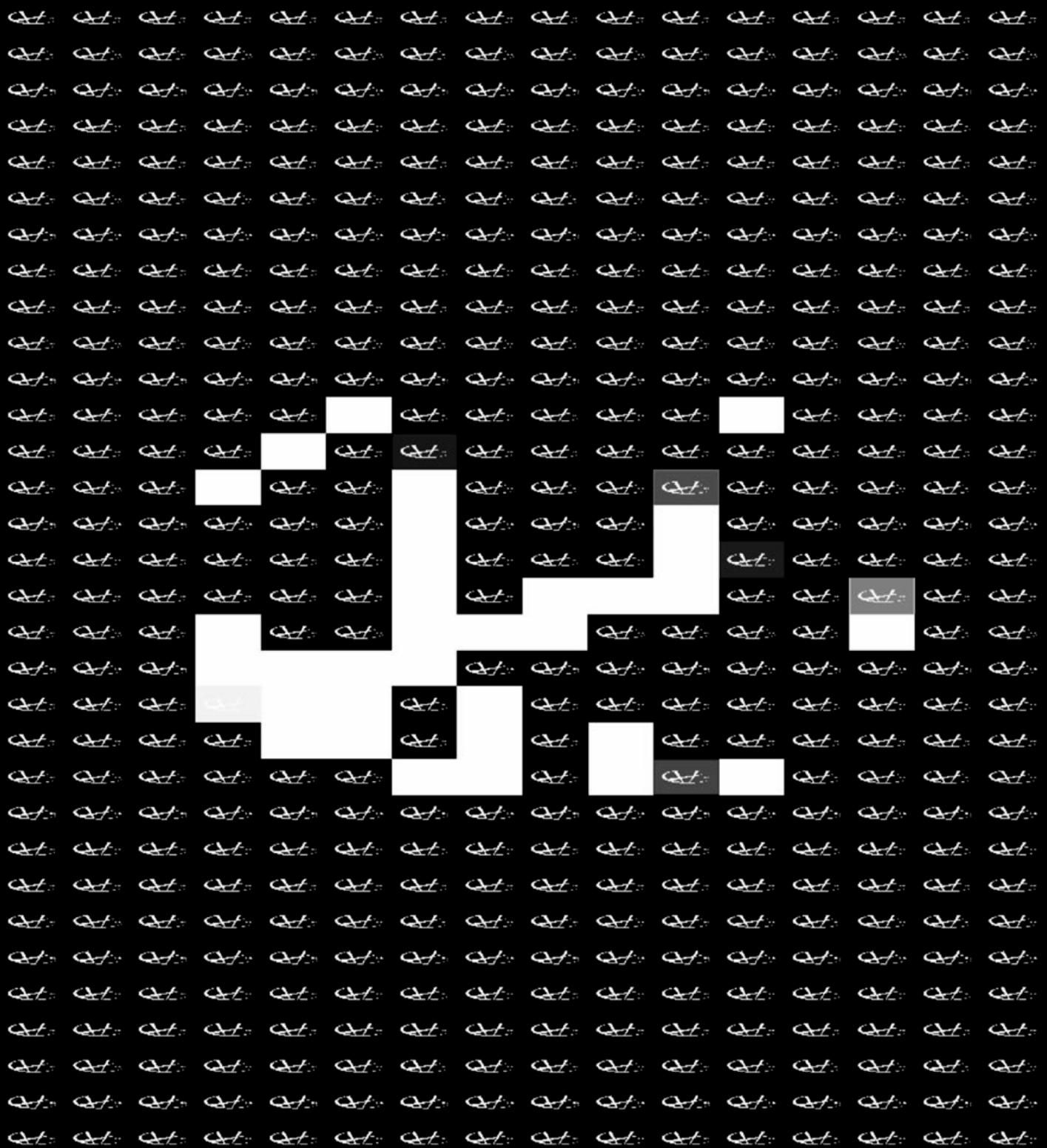
Hymns in Dissonance - Whitechapel
EDITOR 자카

Luminescent Creatures - Ichiko Aoba
EDITOR 자카

MAYHEM - Lady Gaga
EDITOR SRUKSAN

Something Beautiful - Miley Cyrus
EDITOR 자카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KHL world / HAUS OF MATTERS

Contact.
khlhomofficial@gmail.com

Instagram.
[@hausofmatters](https://www.instagram.com/@hausofmatters)